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석사학위논문

曾鞏의 ‘亭臺樓閣記’ 연구

鐘 小 瓊

제주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2023년 8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曾鞏의 '亭臺樓閣記' 연구

이 논문을 문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鐘 小 瓊

제주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지도교수 조 성 식

鐘 小 瓊의 문학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6월

심사위원장 최 석 원 ㊞

위 원 鄭 啓 暻 ㊞

위 원 ㊞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목 차

국문요약 ····· iii

Ⅰ. 서론 ····· 1

1. 선행연구 ····· 1

2. 빈칸 있음 연구 의의 및 목적 ····· 5

Ⅱ. 亭臺樓閣記의 의미 ····· 8

1. 亭臺樓閣記의 개념 ····· 8

2. 亭臺樓閣記의 범위 및 분류 ····· 11

Ⅲ. 曾鞏 亭臺樓閣記의 내용 분석 ····· 17

1. 종교적 세계관의 반영 ····· 17

1) 闢佛의 태도 ····· 17

2) 贊佛의 태도 ····· 21

2. 인생 포부 및 추구 ····· 26

1) 인생 포부 ····· 26

2) 은일 추구 ····· 33

3. 정치 주장 ····· 36

1) 백성 교화 ····· 36

2) 관리 권면 ····· 39

3) 우환 의식 ····· 44

Ⅳ. 曾鞏 亭臺樓閣記의 서사 전략 ····· 47

1. 陰柔한 문풍 ····· 47

1) 駢文과 散文의 응용 ····· 48

2) 虛詞의 활용 ····· 51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엄밀한 佈局 ····· 58
1) 문장 배치의 적절성 ····· 59
2) 정확한 언어 표현 ····· 60

V. 결론 ····· 64

참고문헌 ····· 66
中文摘要 ····· 69
ABSTRACT ····· 71

표 목 차

〈표 1〉 曾鞏 기문의 분류와 비율 ····· 1
〈표 2〉 曾鞏 기문의 분류 ····· 12
〈표 3〉 曾鞏 亭臺樓閣記의 분류 및 내용 ····· 14
〈표 4〉 曾鞏 亭臺樓閣記의 駢文과 散文 응용 예문 ····· 49
〈표 5-1〉 曾鞏 亭臺樓閣記의 虛詞 활용 통계 ····· 52
〈표 5-2〉 曾鞏 亭臺樓閣記의 虛詞 활용 통계 ····· 52
〈표 5-3〉 曾鞏 亭臺樓閣記의 虛詞 활용 통계 ····· 53
〈표 6〉 曾鞏 亭臺樓閣記의 虛詞 활용의 의미 및 예문 ····· 54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曾鞏의 ‘亭臺樓閣記’ 연구

鐘 小 瓊

제주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요약

北宋은 亭臺樓閣記의 전성기이자, 이러한 記文 발전의 성숙기이기도 하다. 北宋의 亭臺樓閣記는 문학가들이 건축의 주체를 기술할 뿐만 아니라 기술하는 주체를 이용하여 의론하고, 정서를 나타내며 문학가의 독특한 개인 사상을 표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亭臺樓閣記는 기탁의 매개체가 되었으며, 당시 문학가들이 자신의 사상・감정・정신・추구, 그리고 현실과 이상을 표현하는 자기 조절의 공간부호였다. ‘당송산문팔대가’중 歐陽脩・蘇軾・曾鞏・王安石・蘇轍은 北宋 亭臺樓閣記의 가장 걸출한 인물이다.

曾鞏의 亭臺樓閣記는 北宋과 明淸, 그리고 후대에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曾鞏의 작품은 北宋 시기 널리 읽혔고 학습자와 모방자가 많이 있었으며 唐代에 영향이 컸다. 그러나 현재까지 曾鞏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중시되지 않았고, 曾鞏의 亭臺樓閣記 또한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

본 논문은 曾鞏의 24편 亭臺樓閣記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여, 曾鞏의 亭臺樓閣記의 주요 내용, 글쓰기 특성, 창작 목적, 역사적 지위 및 문학적 가치를 탐구한다. 曾鞏의 亭臺樓閣記 및 관련 기문의 특징을 탐구함으로써 이들 건물에 기탁되었던 曾鞏의 개인적 특성을 연구한다. 이를 통해 曾鞏과 그의 문학 창작, 나아가 北宋의 亭臺樓閣記의 보편적인 문학적 특징을 알아본다.

본고는 4장으로 나누어 상세히 논술한다.

제1장에서는 曾鞏의 亭臺樓閣記의 연구현황과 의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서술한다.

제2장에서는 曾鞏의 亭臺樓閣記의 분류 경계선을 명확히 하고, 연구범위를 정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하여 亭臺樓閣記를 재분류한다.

제3장에서는 曾鞏의 亭臺樓閣記의 분류에 따라 각 부류 중에 글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여, 그 속에 나타난 曾鞏의 종교적 태도, 인생의 포부, 흥미, 정치적 주장 등을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曾鞏의 亭臺樓閣記의 문장 풍격, 駢文과 散文의 응용, 虛詞의 활용, 문장의 배치, 언어의 표현 등 방면을 고찰함으로써 曾鞏의 亭臺樓閣記 서사 전략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曾鞏의 문학 창작의 특색과 그의 작품의 문학적 가치를 파악한다.

주제어: 曾鞏, 亭臺樓閣記, 기문, 내용분석, 문장 특징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Ⅰ. 서론

1. 선행연구

曾鞏(1019~1083)의 자는 子固, 호는 南豐이다. 뛰어난 고문 작가이며 글에도 뛰어나 '당송팔대가'의 한 사람으로 꼽히며, 北宋의 저명한 문학가, 정치인, 사학자이다.[1] 茅坤의 「南豐文鈔引」을 보면 "曾鞏이 지은 글에서 수준이 가장 높은 것은 서문과 기문이다."[2] 라는 구절을 확인할 수 있다.

曾鞏은 北宋 문학을 대표하는 뛰어난 작가로, 그의 문학적 성과는 주로 산문에 있다.[3] 曾鞏의 고문 選本중에서 다른 문체에 비해 기문의 편수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기문의 문학성이 가장 높고 특징이 뚜렷함을 알 수 있다.[4] 曾鞏의 기문 가운데서도 亭臺樓閣記가 대부분인 것을 보면 亭臺樓閣記가 曾鞏의 기문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아래 표와 같다[5]

曾鞏의 기문 (총 39편)					
분류	亭臺樓閣記 (24편)	學記 (2편)	山水遊記 (2편)	書畫雜物記 (2편)	人事雜記 (9편)
비율	61.5%	5.1%	5.1%	5.1%	23.1%

*<표 1> 曾鞏 기문의 분류와 비율

위의 표와 본문의 원문은 1984년 中華書局에서 출판한 陳杏珍, 晁繼周 點校의 『曾鞏集』을 주로 참조하고, 번역문은 2011년 한국전통문화연구회에서 출판한 宋基采의 번역주를 『譯註唐宋八大家文抄 曾鞏』 주로 참조했다.

---

1) 曾鞏 著, 『曾鞏集』 (全二冊), 陳杏珍・晁繼周 點校, 中國古典文學基本從書, 中華書局, 1984, P.1.
2) 茅坤 編, 高海夫・薛瑞生・淡懿誠 校註, 『唐宋八大家文鈔校註集評』, 第六卷「南豐文鈔」: "曾之序・記爲最." 三秦出版社, 1998, P.3621.
3) 王琦珍 著, 『曾鞏評傳』, 江西高校出版社, 1990, P.70.
4) 王基倫의 연구 통계 결과에 따르면: 서발문, 증서문, 잡기문은 후대의 선가들에 의해 비교적 중시되고, 또 잡기류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王基倫 저『당송 고문론집』의 「증공의 문들의 체류 구분과 그 의의」를 참조한다. 臺北裏仁書局, 2001, P.151-167.
5) 통계 근거:
①曾鞏 著, 『曾鞏集』 (全二冊), 陳杏珍・晁繼周 點校, 中國古典文學基本從書, 中華書局, 1984.
②郭預衡 主編, 『唐宋八大家散文總集』(全十卷), 河北人民出版社, 1996.
③뒷글에서 자세히 논술하다. 그 기문분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제Ⅱ장에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본고는 曾鞏의 亭臺樓閣記에 대한 고찰을 통해 산문의 사상적 내용・주장・예술적 특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亭臺樓閣記는 기체문과 建築物記에 속하므로 본고에서 ‘曾鞏의 기문’, ‘北宋의 亭臺樓閣’, ‘曾鞏 문체 예술적 특성’을 전제로 선행 연구를 정리 및 분석했다.

위의 세 가지 연구 주제의 논문은 주로 2000년 이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총 22년간의 연구를 정리해보도록 하겠다.[6)]

1) 중국의 선행연구

중국에서는 2000년부터 2022년 (22년) 사이 ‘曾鞏 기문연구’를 주제로 한 학위 논문이 3편에 불과했으며, 그중에서도 일부 내용만 曾鞏의 亭臺樓閣記 연구와 관련이 있다.

2012년 劉蕓의 석사논문 「曾鞏記體散文研究」, 2013년 張超旭의 석사논문 「曾鞏記體文研究」, 2021년 대만사범대 楊盈姍의 석사논문 「曾鞏記體散文研究」 있다. 劉蕓은 曾鞏의 기문을 人事雜記類・工程營造類・寺院記類・學記類의 4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그 내용의 특징, 구조, 언어, 정서를 분석했다. 張超旭은 曾鞏의 기문을 亭臺樓閣記・學記・寺觀記・人事雜記로 분류하고, 주로 曾鞏 기문의 예술적 특색, 전승, 한계, 역사적 지위를 연구했다. 楊盈姍은 曾鞏의 기문을 建築・興造脩建・山水遊記・學記・人事雜記 5가지로 분류했다. 또한 내용 표현을 연구하고, 문장 구조, 수사 기법 및 문풍 측면에서 曾鞏의 글쓰기 예술 및 산문 특성을 분석했으며, 曾鞏의 기문에 대한 후대의 평가 및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위의 세 논문 모두 曾鞏의 기문을 분류했지만, 명확하고 획일적인 기준이 없어 분류가 각기 다르다. 또한 曾鞏의 亭臺樓閣記의 경우에 범위가 모호하고 연구 대상이 혼란스럽다는 단점이 있다.

선행연구 논문 중 ‘曾鞏의 亭臺樓閣記’관련 학위 논문도 3편을 찾아볼 수 있다. 2007년 劉波의 석사논문 「北宋亭臺樓閣散文研究」, 2010년 王海苗의 석사논문 「宋八大家的臺閣名勝記散文研究」, 2018년 李佳의 박사논문 「北宋建築物

6) 선행 연구들은 ‘中國知網CNKI’와 ‘한국 RISS’에서 중국・한국・일본의 기존 관련 논문 주로 조사되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記研究」이다.

劉波의 논문은 曾鞏의 亭臺樓閣記를 주체 연구로 삼고 亭臺樓閣記에서 曾鞏의 經世觀・文道觀・創作觀을 비교적 정밀하게 분석했다. 曾鞏의 亭臺樓閣記의 北宋 산문에서의 지위와 가치를 충분히 긍정함과 동시에 후대의 연구자들에게 분류・정의・분석・역사 자료 등 다양한 방면에 참고 자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서정적인 寫景의 '文學散文'을 주제로 한 글만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曾鞏의 亭臺樓閣記 중 13편만을 선정하였으며, 禪院・祠堂・碑刻・寺廟・道觀 등과 관련된 글은 포함하지 않았다. 王海苗의 논문은 '당송팔대가' 중 '칠대가'[7]의 樓閣名勝記류의 글을 연구하였으며, 연구내용은 각 작품의 사상과 예술특징을 다루었으며, 후일 연구자들이 당송팔대가의 樓閣名勝記 산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참고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 중 曾鞏의 기문 39편 중 20편을 樓閣名勝記로 분류해 비교적 완전하게 구분했지만 분석한 글은 상당히 간략했다. 李佳의 논문은 北宋의 建築物記・寺觀記・寺廟記・府衙記・路渠記・亭樓記를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누어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그 중 曾鞏의 建築物記은 曾鞏의 建築物記의 수, 유형, 글 개념과 구조 및 풍격을 포함하여 사례 연구의 핵심으로 간주했다. 그리고 曾鞏의 建築物記類 글을 작문의 원인에 따라 '被動作記'[8]와 '主動作記'[9]의 두 종류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류 방법은 사람들에게 기문의 창작 동기를 분류할 때 새로운 분석 기준이 되었다. 하지만 曾鞏의 기문 중 31편을 建築物記로 분류했는데, 建築物記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분류의 목적성이 강하지 않아 향후 曾鞏의 亭臺樓閣記의 특성에 관한 후속 연구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 밖에 2010년 劉禕의 석사논문 「北宋亭臺樓閣記研究」, 2008년 喻進芳의 박사논문 「曾鞏的文化品格與詩文創作」, 2014년 錢蕾의 석사논문 「北宋記體文研究」, 2016년 牛麗娟의 석사논문 「宋六家記體散文比較研究」등 曾鞏의 亭臺樓閣記와 관련한 논문이 있는데 曾鞏의 기문과 亭臺樓閣記에 대해 중점을 두고 연구

---

7) 王海苗의 논문은 '당송팔대가' 중 '칠대가 (韓愈・柳宗元・歐陽脩・曾鞏・王安石・蘇軾・蘇轍)'에 대한 연구한다. 蘇洵의 이러한 기문은 단 한 편이 있기 때문에 논문에서 개별 연구를 수행하지 않고 간단한 분석만 수행한다.

8) 被動作記란 작가가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기문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9) 主動作記란 작가가 주관적인 의지에 따라 기문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2) 한국의 선행연구

한국에서는 曾鞏을 다룬 학술논문이 30여편 있지만 曾鞏의 亭臺樓閣記를 중점적으로 다른 연구는 거의 없고, 언급되더라도 소략한 몇 줄 정도이다. 曾鞏의 산문을 연구한 학위 논문으로 5편이 있으며, 曾鞏의 亭臺樓閣記를 연구 주제로 다루기는 하였으나, 曾鞏의 亭臺樓閣記에 대한 분류 범위가 좁아 각각의 작품 속 문장 특징 및 기교에 대한 충분한 분석은 하지 않고 있다.

金容杓의 「曾鞏 산문 연구」 (1994년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曾鞏의 산문을 여섯 가지로 분류했는데, 亭臺樓閣記는 그 중 雜記文에 속한다고 보았다. 이 연구는 기문의 정의와 함께 曾鞏 기문의 특징을 분석하여 비교적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으나, 曾鞏의 기문이나 亭臺樓閣記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많지 않다. 그의 또 다른 논문인 「曾鞏 記敍文 을 통해 본 그 실용주의 정신」 (1991년 제6집, 중국학 연구)에서는 曾鞏의 34편의 기문 속에 드러난 실용주의 정신을 연구하였다. 亭臺樓閣記에 관해 언급한 바가 있긴 하지만 글의 일반적 특성과 주제 속 실용주의에 치중한 연구에 가깝다. 金松柱의 「曾鞏記文研究」(2009년 석사학위 논문)는 각각 曾鞏 기문의 창작 배경, 분류와 내용 분석, 창작예술에 대해 고찰했다. 그는 曾鞏 기문을 寺觀記・亭臺堂記・治績記・學記・山水遊記・祠堂廟記 6가지로 분류하고, 각 분류의 내용을 분석했다. 曾鞏 기문은 사실성과 명확성이 강하고 자신의 진정한 사상과 감정을 자연스럽게 융합하여 작품에 풍부한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며, 曾鞏 작품의 특징은 글이 소박하고 구성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문장이 단락으로 구분되지 않더라도 맥락이 분명하다고 보았다. 金松柱는 曾鞏의 기문에서 서사와 의론을 결합하고 어구, 수미상관의 측면에서 창작예술을 분석했다.

洪堯漢의 「曾鞏 연구—산문을 중심으로」, 郭魯鳳의 「曾鞏 산문 이론과 특징」에서 曾鞏을 연구했으나, 曾鞏의 亭臺樓閣記에 대한 언급은 많지 않다. 權錫煥의 「宋代亭臺樓閣記空間觀念轉型研究」[10]에서는 주로 北宋 亭臺樓閣記의

10) 權錫煥의「宋代亭臺樓閣記空間觀念轉型研究」,『중국산문연구집간』제11집, 2021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休閒文化와 憂患意識의 깊은 결합’과 ‘강한 議論性 특징이 休閒의 재미를 크게 약화시킨다.’는 두 가지 특징을 연구하여 北宋 亭臺樓閣記 창작의 공간 관념 변형을 연구했다. 이는 北宋의 亭臺樓閣記에 관한 연구이기는 하나 특별히 曾鞏의 亭臺樓閣記를 다루지는 않았다.

3) 일본의 선행연구

일본의 曾鞏 관련 연구 논문으로 3편을 찾아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亭臺樓閣記를 언급한 것은 2편으로 관련 내용이 많지 않다. 麓・保孝(1907~1988)의 「曾南豊 の學行に就いて——宋代儒家思想史上に佔める地位」[11]에서는 曾鞏의 亭臺樓閣記를 일부 언급하였으나, 宋代 曾鞏의 儒家 사상과 지위를 논증하기 위한 것에 치우쳤다. 東英壽의 「曾鞏の散文文體の特色——歐陽脩散文との類似點」은 현재 일본에서 曾鞏의 문장의 특색을 연구하는 데 중점을 둔 첫 번째 연구 성과라 할 수 있다. 연구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歐陽脩와 曾鞏의 기문・서문 중 虛詞의 적용 방법을 통해 양자 문장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한 것을 들 수 있다. 둘째, 韓愈의 기문・서문에서 虛詞의 사용 빈도를 연구하고 歐陽脩와 曾鞏의 虛詞의 사용 빈도와 비교하여 曾鞏 고문이 ‘陰柔’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데이터를 나열하는 연구 방식으로 曾鞏 고문의 ‘陰柔’ 풍격을 논증하였다.

2. 빈칸 있음 연구 의의 및 목적

1) 曾鞏 亭臺樓閣記 의 연구 의의

첫째, 현재 ‘당송팔대가’ 작품 연구와 관련해서 曾鞏의 작품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曾鞏은 송나라 때 유명했고 명나라와 청나라 때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현재 曾鞏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며 본고를 통해 曾鞏 관련

11) 麓・保孝(1907~1988).「曾南豊 の學行に就いて——宋代儒家思想史上に佔める地位」, 방위대학 편제『방위대 기요 인문 사회과학편』제7집. 1963년 3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연구가 보다 확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

둘째, 지금까지 曾鞏의 亭臺樓閣記만을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가 부족하고, 曾鞏의 亭臺樓閣記의 문학적 가치가 아직 주목받지 못한 상태이다. 曾鞏의 亭臺樓閣記는 北宋의 亭臺樓閣記가 번성하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며, 曾鞏의 산문 문학이 보여준 성취의 가장 큰 결과물이기도 하다. 현재의 연구 상황에 근거하여 볼 때, 北宋과 唐宋 대의 亭臺樓閣記 연구가 많이 있지만 曾鞏의 亭臺樓閣記를 관련된 연구가 많지 않다.

셋째, 曾鞏의 亭臺樓閣記는 曾鞏의 사상·예술적 특성·문학적 가치 등을 연구할 때 우선적으로 살펴볼 가치가 있는 작품이다. 산문에서 曾鞏의 가장 큰 문학적 성취를 확인할 수 있다면, 曾鞏 산문에서 가장 큰 성취는 그의 기문이라 할 수 있다. 曾鞏의 글과 문장을 충분히 이해하려면 曾鞏의 亭臺樓閣記를 우선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2) 曾鞏 亭臺樓閣記 의 연구 목적

현재 曾鞏의 亭臺樓閣記에 대한 연구 체계가 미비하고, 연구 배경이 부족하며 내용 분석 또한 재고의 여지가 많다. 그리고 亭臺樓閣記의 구분이 모호해 曾鞏의 亭臺樓閣記를 정확하게 분류할 수 없어서 曾鞏의 亭臺樓閣記에 대한 합리적 연구 방법이 부족한 문제가 있다. 본고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曾鞏의 亭臺樓閣記 연구를 위해 다음에 주안점을 둔다.

먼저 亭臺樓閣記의 개념과 정의를 상세히 설명하고, 曾鞏의 亭臺樓閣記를 합리적으로 정리한다. 그런 다음에 기문의 내용을 세분화하고 주제 전달을 위해 어떠한 문장 기교를 사용했는지 묘사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나아가 亭臺樓閣記의 개념과 구분 기준, 曾鞏의 亭臺樓閣記의 창작 목적·사상 주장·서사 전략 등의 구체적인 분석을 한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한다.

첫째, 亭臺樓閣記의 개념과 연구범위를 명확히 하여, 曾鞏의 기문 중 亭臺樓閣記를 합리적으로 구분한다.

둘째, 曾鞏의 창작 목적을 분석하고, 曾鞏의 글 속에 내포된 내용이라 할 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있는 曾鞏의 인생 포부・가치 추구・처세 방식・감정적 성향을 탐구한다.

셋째, 曾鞏의 亭臺樓閣記를 창작 기교와 문학예술 방면에서 曾鞏 기문의 서사 전략과 특색을 탐구한여, 曾鞏의 기체 산문, 나아가 曾鞏의 글의 사상 내용, 예술 특성과 역사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Ⅱ. 亭臺樓閣記의 의미

1. 亭臺樓閣記의 개념

亭臺樓閣記는 기문의 한 부류에 속하기에 曾鞏의 亭臺樓閣記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문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亭臺樓閣記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는데, 이는 曾鞏의 亭臺樓閣記를 연구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기문에 대해 역대로 여러 학자가 정의했다. 우선 문학가들은 기문의 창작 목적, 또는 기문의 내용, 특징에 의해 기문을 정의한다. 기문은 '雜記文', '雜記體'라고도 하며, 모든 記事·記物은 분류가 쉽지 않아 부득이하게 단독으로 하나의 부류가 되었다. 劉勰의 『文心雕龍·書記』에서 "書記의 내용은 매우 광범위하고, 그것은 각양각색의 주제를 포함한다. 필찰의 명목이 더욱 번잡하여 고금의 종류가 매우 많다."[12]고 하였다. 이는 기문의 범위가 넓고, 기사가 주를 이루며, 명목이 많은 특징을 언급한 것이다. 『文心雕龍·雜文』에서 "원래 이런 문체는 마음속의 번민을 토로함으로써 작가의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작가가 순탄치 않을 때 그 고상한 도덕을 표현하거나, 어려울 때 그 태연한 마음을 담아서라도 깊이 있는 사상과 기발한 문체를 가져야 하는 것이 이런 문체의 주요 특징이다."[13]라고 하였다. "한나라 이후의 잡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명칭의 종류가 매우 많다. 어떤 것은 典·誥·誓·問이라고 하고, 어떤 것은 覽·略·篇·章이라고 하며, 어떤 것은 曲·操·弄·引이라고 하며, 어떤 것은 吟·諷·謠·詠 등이라고 한다."[14]고 하였다. 여기에서는 雜文의 창작 목적과 雜文의 범위가 넓다는 특징에 대해 언급하였다. 명나라 徐師曾의 『文體明辨序說』에서는 "'記'란 잊어버리지 않도록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15]라고 하였고, 명나라 吳訥의 『文章辨體序說』에서는 "'記'란 서사에 능한 것을 위주로 한

12) 劉勰 著, 『文心雕龍』: "書記廣大, 衣被事體, 筆劄雜名, 古今多品." 周振甫 註, 人民文學出版社, 1981年. P.278.
13) 劉勰 著, 『文心雕龍』: "原夫茲文之設, 乃發憤以表志, 身挫憑於道勝, 時屯寄於情泰, 莫不淵嶽其心, 麟鳳其採, 此立體之大要也." 周振甫註, 人民文學出版社, 1981年. P.147.
14) 劉勰 著, 『文心雕龍』: "詳夫漢來雜文, 名號多品. 或典誥誓問, 或覽略篇章, 或曲操弄引, 或吟諷謠詠." 周振甫 註, 人民文學出版社, 1981年. P.147.
15) 明 吳訥·徐師曾 著, 『文體明辨序說·文章辨體序說』: "記者, 所以備不忘." 人民文學出版社, 1998年. P.145.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다.”[16]고 하였다. 청나라 姚鼐의 『古文辭類纂・序』에서는 “雜記類는 또한 비문과 같은 종류이다.”[17]라고 하였고, 청나라 曾國藩의 『經史百家雜鈔』에서는 “雜記類란 雜事를 서술하는 것이다.”[18]라고 하였으며, 청나라 唐彪의 『讀書作文譜』에서는 “‘記’는 바로 일을 기록하는 글이다. 어떤 것은 단순하게 기술하고, 어떤 것은 단순하게 의론하고, 어떤 것은 서술하면서 의론하고, 또 어떤 것은 물건을 기탁하여 의의를 표한다. 어떤 것은 序文으로 시작하고 韻語로 기를 삼는 것이 있다. 어떤 것은 詩歌를 편말로서 삼는다. 이것들은 모두 따로 하나의 체제를 이루고 있다.”[19]고 말했다.

기문의 분류에 따라 ‘記’의 정의를 알 수 있다. ‘雜’과 ‘繁’은 기문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기문의 분류는 통일되기 어렵다. 송나라 李昉의 『文苑英華』는‘記’를 “宮殿・廳壁・宴饗・公署・館驛・樓・閣・城・城門・水門・橋・井・河渠・寺廟・祈禱・學校・文章・釋氏・宴遊・紀事” 20가지로 나누었다.[20] 송나라 姚鉉은 『唐文粹』를 편저할 때 ‘記’를 “古蹟・陵廟・水石巖穴・外物・府署・堂樓亭閣・興利・卜勝・館舍・橋樑・井・浮圖・災診・燕會・燕犒・書琴畫故物・種植” 17가지로 나누었다.[21] 청나라 林紓의 『春覺齋論文』에서도‘記’에 대해 분류했는데 “그러면 勘實・浚渠・築塘・脩祠宇・紀亭臺에 대한 것은 한 부류로 취급하며, 書畫와 古器物을 기록하는 것은 또 다른 부류로 취급하며, 山水를 기록하는 것은 또 다른 부류로 취급하며, 사소하고 기괴한 일을 기록하는 것은 본전에 들어갈 수 없어 그 이름을 ‘書某事’라고 하고 또 다른 부류로 취급한다, 學記는 논리적 글이므로 廳壁 부류에 들어가는 것은 마땅하지 않고, 遊燕와 觴詠하는 것은 또 다른 부류로 취급한다. 종합하

16) 明 吳訥・徐師曾 著, 『文體明辨序說・文章辨體序說』: “‘記’以擅敍事爲主.” 人民文學出版社, 1998年. P.41.
17) 褚斌傑 主編, 『中國古代文體概論』: “雜記類者, 亦碑文之屬.” 北京大學出版社, 1990年. P.353.
18) 清 曾國藩 著, 『經史百家雜鈔・序例』: “雜記類, 所以記雜事者.” 臺北弘道文化事業公司, 1976年. P.1.
19) 王水照 編, 『歷代文話』: “記者, 紀事之文也. 有單敍者, 有純議論者, 有半敍事半議論者, 又有託物以寓意者. 有首之以序, 而以韻語爲記者. 有篇末系以詩歌者. 皆爲別體.” 全十冊, 復旦大學出版社, 2007年, 第4冊. P.3562.
20) 宋 李昉 編, 『文苑英華』, 卷797-834: 將‘記’分爲20種, “宮殿・廳壁・宴饗・公署・館驛・樓・閣・城・城門・水門・橋・井・河渠・祠廟・祈禱・學校・文章・釋氏・宴遊・紀事.” 中華書局, 1966年.
21) 宋 姚鉉 編, 『唐文粹』: 將‘記’分爲 “古蹟・陵廟・水石巖穴・外物・府署・堂樓亭閣・興利・蔔勝・館舍・橋樑・井・浮圖・災診・燕會・燕犒・書琴畫故物・種植” 17類. 上海商務印書局, 1963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면 모두 記라고 하지만 체제는 실제로 한 가지가 아니다.”[22] 청나라 曾國藩은 經書에서 雜記文의 기원을 상고했다. “『禮記』의 「投壺」·「深衣」·「內則」·「少儀」와 『周禮』의 「考工記」은 모두 雜記文이다. 후대에 고문가들은 宮室을 수리 건조할 때 기문이 지었고, 山水를 유람할 때 기문을 지었으며, 그리고 器物과 소소한 일을 기록했는데, 雜記文이다.”[23] 楊慶存의 『宋代散文研究』에서는 기문을 분류하면서 亭臺堂閣記·山水遊記·書畫記·雜記 네 종류로 나누었다.[24] 曾棗莊의 『宋文通論』에서도 송나라의 사회적 특징에 따라 송대의 기문은 建築物記·學記·山水記·書畫記 4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25] 褚斌傑의 『中國古代文體概論』에서는 雜記에 기록된 내용과 특성에 따라 간략하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는데, 즉 臺閣名勝記·山水遊記·書畫雜物記·人事雜記가 그것이다.[26]

위에서 언급한 기존 학자들의 기문에 관한 각종 견해와 분류 기준을 살펴본 결과, 본고에서는 기문을 亭臺樓閣記·學記·山水遊記·雜物記·人事雜記로 분류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류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문의 내용에 근거하여 상기 5개 유형으로 나눈다.

둘째, 亭臺樓閣記를 한 부류로 분류하는 것인데,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기존에 建築物記로 분류하는 것보다 더 자세하고 명확하다. 이렇게 하면 亭臺樓閣記의 내용과 문학예술, 그리고 亭臺樓閣이 北宋에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 특징을 탐구하는 데 유리하다. 또 碑石, 橋, 井, 河渠 등 建築物이나 物器를 비교적 단순하게 기록한 것을 雜物記로 분류하였다.

셋째, 亭臺樓閣記는 송나라까지 발전하여 더 이상 단순한 建築紀事가 아닌, 작

---

22) 褚斌傑 著, 『中國古代文體概論』: “然勘實·浚渠·築塘·脩祠宇·紀亭臺, 當爲一類. 記書畫·記古器物, 又別爲一類. 記山水又別爲一類. 記瑣細奇駭之事, 不能入正傳者, 其名爲 ‘書某事’, 又別爲一類. 學記則爲說理之文, 不當歸入廳壁. 至於遊燕觴詠之事, 又別爲一類. 綜名爲記, 而體例實非一.” 北京大學出版社, 1990年. P.353.

23) 清 曾國藩 著, 『經史百家雜鈔』: “經如 『禮記』 之 「投壺」·「深衣」·「內則」·「少儀」, 『周禮』之「考工記」皆是. 後世古文家脩造宮室有記, 遊覽山水有記, 以及記器物, 記瑣事皆是.” 餘興安 註譯, 昆侖出版社, 1997年. 卷22.

24) 陽慶存 著, 『宋代散文研究』中將記體散文分爲 : “亭臺堂閣記·山水遊記·書畫記·雜記四類.” 人民文學出版社, 2002年. P.194.

25) 曾棗莊 著, 『宋文通論』中, 根據宋代社會特點, 將記體散文分爲 : “建築物記·學記·山水記·書畫記四類.” 上海人民出版社, 2008年. P.658-741.

26) 褚斌傑 著, 『中國古代文體概論』 中根據雜記文所記寫的內容·特點, 簡約地分爲四類, 卽臺閣名勝記·山水遊記·書畫雜物記和人事雜記.” 北京大學出版社, 1990年. P.353.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가들이 遊樂하거나 休閒하거나 抒懷하거나 사람을 紀念하거나 일을 기록하는 등의 의미까지 포괄적으로 지니게 되었다. 이에 송대의 亭臺樓閣記는 분명히 시대적 특징과 연구할 가치가 있다.

넷째, 亭臺樓閣記의 명명법이다. 좁은 의미에서 亭臺樓閣記는 亭・臺・樓・閣을 대상으로 기술하는 것이지만, 넓은 의미에서 亭臺樓閣記의 기술 대상은 亭・臺・樓・閣・館・軒・堂・齋・殿・舍 등 문인들의 유희와 관련된 장소이다. 이러한 글에 대한 명명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亭臺記’, ‘臺閣名勝記’, ‘建築物記’, ‘亭臺堂閣記’ 등이 있다. 연구의 대상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亭臺樓閣記’라고 통칭한다.

다섯째, 亭臺樓閣記의 개념이다. 우선 ‘人爲’ 성질의 관점에서 보면 亭臺樓閣記는 기문의 일종으로 문인들이 遊樂・紀念 등을 인공적인 건축물에 기탁하여 기술한 글을 말한다. 다음으로 문인의 창작 목적 관점에서 보면 亭臺樓閣記는 작가들의 亭臺樓閣을 차용하여 抒懷・表志・說理・訴說抱負・表明態度・闡述思想 등을 서술하는 것으로, 독자들은 그 속에서 작가의 어떤 심정이나 태도를 느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 소재는 亭・臺・樓・閣・館・軒・堂・齋・庵・莊・村・舍・房・園・院・池・別墅・廳壁 등은 문인들의 유희와 관련된 장소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장르와 관련된 모든 기록 산문은 亭臺樓閣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亭臺樓閣記의 창작 수법은 다양하다. 사물을 기술(記物)하거나 감정을 토로(抒情)하고 의론(議論)하며, 먼저 서술하고 나서 의론(先敍後議)하거나 반대로 먼저 의론하고 나서 서술하고(先議後敍), 또 서술과 의론이 뒤섞여 있는(夾敍夾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주로 대상을 기록하거나 대상과 어떤 연관이 있는 사물을 기록하였다.

2. 亭臺樓閣記의 범위 및 분류

위에서 정한 기문의 분류와 亭臺樓閣記의 정의에 따르면 曾鞏의 亭臺樓閣記의 범위는 더욱 명확해진다. 曾鞏의 기문을 분류하여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曾鞏의 기문 (총 39편)	
亭臺樓閣記 (24편)	分寧縣雲峯院記, 兜率院記, 仙都觀三門記, 飮歸亭記, 醒心亭記, 菜園院佛殿記, 鵝湖院佛殿記, 墨池記, 厄臺記, 金山寺水陸堂記, 學舍記, 南軒記, 撫州顔魯公祠堂記, 擬峴臺記, 洪州新建縣廳壁記, 思政堂記, 閬州張侯廟記, 淸心亭記, 尹公亭記, 廣德軍重脩鼓角樓記, 齊州二堂記, 徐孺子祠堂記, 江州景德寺新戒壇記, 道山亭記.
學記 (2편)	宜黃縣縣學記, 筠州學記.
山水遊記 (2편)	遊信州玉山小巖記, 遊山記.
書畫雜物記 (2편)	雜識(二首), 聽琴序.
人事雜記 (9편)	禿禿記, 繁昌縣興造記, 歸老橋記, 瀛州興造記, 廣德湖記, 齊州北水門記, 襄州宜城縣長渠記, 洪州東門記, 越州趙公救災記.

*<표 2> 曾鞏 기문의 분류

위의 분류법을 통해 분류한 결과, 어디에 속해야 할지 논란이 있을 법한 작품은 「學舍記」, 「墨池記」, 「仙都觀三門記」, 「江州景德寺新戒壇記」 4편이다. 그런데도 본고는 위의 4편을 亭臺樓閣記로 구분하였는데,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學舍記」는 일부 학자들에 의해 學記類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이는 적절하지 못하다. 그 이유는 '學舍'는 「南軒記」의 '南軒'과 같은 건물로, 曾鞏의 서재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學舍記」의 내용은 주로 自述로 되어 있다. 曾鞏 자신의 생애, 의지, 포부에 대한 서술이 있을 뿐 學記가 자주 다루는 주제인 '권학, 교육, 교학'이 주 내용이 아니므로 이 글은 亭臺樓閣記로 분류해야 타당할 것이다.

「墨池記」에 관한 연구 논문은 대부분 이를 學記類 또는 人物雜記류로 분류하였고, 褚斌傑의 『中國古代文體概論』에서는 이를 '臺閣名勝記'로 분류했다. 하지만 본고는 이를 亭臺樓閣記류로 분류한다. 그 이유는 첫째, 그 내용에 관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여 王羲之의 사적에 대해 학자들에게 꾸준히 연구할 것을 권고하였을 뿐, 曾鞏은 글에서 학교, 교육, 교학 방면에 관한 기술이나 의론이 없었다. 둘째, 曾鞏의 학기문은 모두 '學記'를 따서 명명하였는데, 예를 들어「筠州學記」와 「宜黃縣學記」이다. 또한 이 글의 창작 연유로 제시된 "묵지변에서는 현재 이미 州學校의 교실이 되었다. (墨池之上, 今爲州學舍)" [27]는 문장만을 가지고 학기로 분류할 수 없으며, '學舍'를 기록하고 의론하는 글임을 알 수 있다.

「仙都觀三門記」에 대해 어떤 학자는 건축기류로 분류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興造脩建類로 분류하기도 한다. 그러나 「仙都觀三門記」의 내용을 살펴보면 曾鞏은 三門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仙都觀을 서술하였다. 따라서 이 글은 '道觀'을 기록한 글이며, 亭臺樓閣記類로 분류되어야 한다.

「江州景德寺新戒壇記」는 興造脩建類로 분류하는 학자도 있지만, 그 주요 내용을 보면 亭臺樓閣記로 분류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 이유는 曾鞏이 이 글을 쓴 목적은 건립된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기록이 건립된 과정을 통해 승려 智暹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智暹의 끊임없는 노력을 찬양하였으므로 이 글은 寺觀을 기록한 글이며, 亭臺樓閣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의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고는 曾鞏의 亭臺樓閣記 24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이를 다시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曾鞏의 亭臺樓閣記의 내용적 특징이다. 曾鞏의 亭臺樓閣記를 자세히 살펴보면, 비록 '亭臺樓閣'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記의 주체는 亭臺樓閣 자체가 아니라 저자가 부여한 亭臺樓閣에 담긴 강한 주체 의식과 의론적인 색채라는 것이 큰 특징이다. 曾鞏의 亭臺樓閣記의 창작에서 종종 이러한 건축물의 본체를 묘사하는 것이 극히 일부만 있고, 또는 거의 묘사하지 않고, 주로 많은 이치를 따지거나 의논하였다. 曾鞏의 亭臺樓閣記는 불교와 도교에 대한 태도, 유교에 대한 崇儒高古의 집념, 民本의 정치적 주장, 憂濟天下의 經世 추구, 以文名世의 인생 포부, 百折不撓의 의지 사수, 安貧樂道의 은근한 취향 등이 반영되어 있다.

曾鞏의 亭臺樓閣記를 연구의 일관된 진행을 위해 글의 주요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27) 曾鞏 著, 『曾鞏集』(全二冊): "墨池之上, 今爲州學舍." 陳杏珍・晁繼周 點校, 中國古典文學基本從書, 中華書局, 1984. P.279.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曾鞏의 ‘亭臺樓閣記’(총 24편)				
글 내용 분류		편명	창작 시간	내용 요약
유교 불교 도교 종교적 태도	불교 도교를 비난함	「兜率院記」	慶曆 3년 (1043년)	불교가 사치스럽고 생산적이지 않으며, 백성을 우매하게 한다고 비난한다.
		「仙都觀三門記」	慶曆 6년 (1046년)	유교의 『周易』·『禮記』·『春秋』와 도교의 三門을 대조하여 유교는 ‘太息’이고 도교는 ‘蕃昌’이라고 진술한다.
		「鵝湖院佛殿記」	慶曆 8년 (1048년)	문장은 단계 별로 논지를 전개하고, 측면 묘사 수법으로 불교가 토목 공사를 크게 함으로써 백성을 힘들게 하고 재물을 손해 보게 하며 백성을 우롱하는 것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승려의 태도를 찬양하여 유교을 반성함	「分寧縣雲峯院記」	慶曆 3년 (1043년)	分寧縣의 ‘嗇施’, ‘薄義’, ‘喜爭’, ‘重利’의 민풍은 승려 道常의 ‘명리를 중시하지 않고 기꺼이 베푸는 품성(淡泊樂施)’, 고심한 脩行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菜園院佛殿記」	慶曆 8년 (1048년)	승려를 찬양하는 것은 “힘을 쓰면서도 부지런하고, 애써도 전문적이며, 무리하게 이루려 하지 않고, 速效를 추구하지 않는다. (皆用力也勤, 刻意也專, 不肯苟成, 不求速效.)”고 유교의 쇠퇴의 원인을 학자들이 “勤行의 의지와 견지하는 操守가 없다(未嘗有勤行之意, 堅持之操)”고 지적했다.
		「金山寺水陸堂記」	皇祐 원년 (1049년)	金山寺가 폐사되었다가 다시 창건되는 과정을 기록하여, 승려 瑞新이 그 ‘更新’ 사업을 굳게 지킨 것을 찬양함과 동시에 세상 사람들에게 ‘天下之事’는 마땅히 ‘振行’해야 한다고 권면하였다. 유교가 쇠락한 원인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는데, 그 원인을 瑞新과 같은 인재가 부족했기 때문이라 꼽았다.
		「江州景德寺新戒壇記」	熙寧 십년 (1077년)	승려 智暹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부지런하게(不舍其晝夜之勤)’ 20년 동안 寺院을 수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기술하여, 그의 고성한 정신을 기렸다.
인생 포부	인생 포부	「墨池記」	慶曆 8년 (1048년)	‘墨池’라는 소재로 王羲之의 서예 연마 노력을 서술함으로써 성취는 결코 하늘이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연습해야 한다는 도리를 서술하여 학자들이 열심히 공부하도록 격려했다.
		「厄臺記」	慶曆 8년 (1048년)	孔子가 ‘厄臺’에서 곤경에 처하여도 자신의 절조를 견지한 사례를 서술함으로써 先賢들이 대업을 이루려면 고난을 통해 성장할 수 있어야하고, 세상 사람들이 先賢에게 배워야 하며, 어떠한 난관에도 결코 굽히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하였다.
		「學舍記」	至和	이 글은 曾鞏의 자전적 기문으로 집안일이 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및 추구			원년 (1054년)	쳐나고 사방으로 뛰어다니는 고달픈 생활을 서술하면서 자신이 安貧樂道[28]하고 꾸준히 학문에 매진하며, 聖人을 본받아 글로써 이름을 날리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었다.
		「南軒記」	至和 원년 (1054년)	이 글은 曾鞏의 자전적 기문으로 개인의 경험, 고달픈 삶, 온갖 책을 두루 읽고 연구하는 과정을 기술하여 자아를 지키고 세속에 관심을 두는 入世의 思想을 표현했다.
	은일 추구	「醒心亭記」	慶曆 7년 (1047년)	歐陽脩가 친구들과 함께 여행하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歐陽脩가 '백성과 함께 즐긴다(與民同樂)'고, 혼자 유유자적하기를 추구하지 않는 넓은 아량을 가진 수천 년에 한 번 보기 어려운 인재라 찬양한다. 저자의 한가하고 고요한 생활에 대한 동경과 선생님에 대한 존경을 드러낸다.
		「齊州二堂記」	熙寧 6년 (1073년)	曾鞏은 齊州에 처음 건축된 두 곳의 '歷山堂·濼源堂'에서 실증을 고찰하여 이름을 붙였고, 직접 趵突泉라는 이름을 정하고 그의 기문을 썼다. 작가의 산수에 대한 사랑과 동경을 표현했다.
		「道山亭記」	元豐 2년 (1079년)	사물에서 사람으로 이어지는 抑揚反襯[29]의 묘사 수법은 험난한 자연 풍광 속 程公이 역경을 딛고 고달프면서도 즐길 줄 아는 그의 고요하면서도 활달한 포부를 칭송한다.
정치 주장	백성 교화	「撫州顔魯公祠堂記」	嘉祐 원년 (1056년)	서사·서정·의론이 결합되어 顔魯公의 '군주에 대한 충정과 국가에 대한 사랑 (忠君愛國)'을 묘사하고, 그의 품성과 절조를 찬미하며 유교의 대의에 대한 의론을 불러일으킨다.
		「徐孺子祠堂記」	熙寧 9년 (1076년)	徐稚의 祠堂 건립으로 그의 사적을 追敍하고, 그를 기리면서 그의 지조를 지키고, 영리를 부러워하지 않으며, 남과 동조하여 더럽히지 않는 미덕을 극찬함으로써 현실을 타개하려는 의도를 표현하였다.
		「閬州張侯廟記」	嘉祐 4년 (1059년)	聖人은 자연을 잘 이용하고, 재능을 펼치며, 남의 의견을 경청할 줄 알아야 속지 않고 사물의 이치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서술한다. 張飛는 抗敵·衛國·惠民의 공적을 찬양하고, 李君은 古君子를 우러러봐서 張侯廟의 기문을 구하는 행위를 칭송한다.
	관	「尹公亭記」	熙寧 원년 (1068년)	隨州 사람들이 尹洙의 옛 정자를 증축한 일을 서술하고, 尹公은 총애와 모욕에도 놀라지 않다는 '자신의 행위와 사상을 바로잡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추구한다.(正己濟世)'는 덕을 찬송했다. 隨州 官民이 賢人을 잘 공경하는 미덕을 찬양했다.
		「淸心亭記」	嘉祐 7년 (1062년)	梅君의 정자 건립에 관련의 아름다움을 서술함으로써 君子는 虛心과 齋心을 결합하고 中庸之道를 따라 '脩身'·'治國'의 經世致用[3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리 권 면			을 달성해야 함을 기술했다. 梅君의 ‘淸心爲治’[31]를 찬양한다.
		「擬峴臺記」	嘉祐 2년 (1057년)	裴君은 亭을 건립한 후 기문을 구하는 경과를 간략히 서술하고, 아름다운 산천의 경치와 더불어 유람의 즐거움과 抒懷를 상세히 묘사하며, 裴君의 황무지를 비우고 亭을 건립한 유람지의 아름다움과 ‘백성과 함께 즐긴다(與民同樂)’다는 공적을 찬양한다.
		「思政堂記」	嘉祐 3년 (1058년)	‘堂’에서 사람으로 논지를 확대하여 太原 王君의 백성을 다스리고 근면하게 정치하는 것을 생생히 묘사했고, 王君의 “평생의 학문을 추구하여 그의 정사를 정비하는(施用素學, 以脩其政)” 덕을 찬양한다.
		「擬峴臺記」	嘉祐 2년 (1057년)	裴君은 亭을 건립한 후 기문을 구하는 경과가 간략히 서술하고, 아름다운 산천의 경치와 더불어 유람의 즐거움과 서회를 상세히 묘사하며, 裴君의 황무지를 비우고 亭을 건립한 유람지의 아름다움과 ‘백성과 함께 즐긴다(與民同樂)’다는 공적을 찬양한다.
	우환 의식	「飮歸亭記」	慶曆 7년 (1047년)	汪遘가 射亭을 짓고 옛것을 본받은 일을 서술하면서 先王의 道인 ‘射禮’가 쇠락했음을 논하며, 汪遘가 亭를 세워 궁술을 가르쳐 군대를 굳건히 하여 나라를 지킨 것과 居安思危[32]의 憂患意識을 찬양했다.
		「洪州新建縣廳壁記」	嘉祐 3년 (1058년)	縣을 통치하는 어려움을 상세히 설명하고, 지방 관료 집단의 현황을 분석하며, 관리 정비의 어려움과 필요성을 기술한다.

*<표 3> 曾鞏 亭臺樓閣記의 분류 및 내용

28) 安貧樂道는 가난한 처지에 무사히 처할 수 있고, 여전히 道義를 지키는 것을 樂으로 삼는다.

29) 抑揚反襯는 작문 수법 중에 抑揚과 反襯 수법을 가리킨다. 抑揚은 창작할 때 인물이나 사물, 사건 등에 대해 칭찬하고 싶으면 먼저 비판하거나 혹은 먼저 칭찬하는 수법을 말한다. 反襯은 반대, 차별성, 대립성을 가진 사물을 참조로 사용하여 반대쪽에서 주체를 돋보이게 하는 것을 말한다.

30) 經世致用은 학문이 반드시 國事에 유익해야 한다는 뜻이다. 經世致用이라는 말은 명청 시대 사상가 王夫之, 黃宗羲, 顧炎武 등이 제안했다. 그들은 고대 작가의 글과 행동을 배우고 인용하는 것은 治事와 救世를 급선무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당시 偽理學家의 비현실적인 空洞한 학문에 반대하여 후세에 큰 영향을 끼쳤다.

31) 淸心爲治는 관리 업무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해 관리자가 자기 성찰에 능하고 마음을 맑게 하며 자기 수양을 중시하는 것을 말한다.

32) 居安思危는 안정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난과 화를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左傳・襄公十一』에서 나왔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Ⅲ. 曾鞏 亭臺樓閣記의 내용 분석

1. 종교적 세계관의 반영

儒·佛·道 종교사상에 대한 반영은 曾鞏의 亭臺樓閣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그 글들을 보면 '闢佛', 혹은 '贊佛'로 유교를 다시금 고찰하는 내용이다. 曾鞏은 불교를 비난하거나 불교의 도리를 논박했으며 동시에 불교와 도교 승려의 어떤 특성을 찬양하여 유교가 쇠락한 원인을 되짚었다.

1) 闢佛의 태도

'闢佛'이란 불교를 비난하고 불교의 도리를 논박하는 태도를 말한다. 曾鞏의 亭臺樓閣記에는 불교 및 불교 사상에 대한 부정과 비판의 태도가 뚜렷하다. 曾鞏의 이런 태도는 韓愈의 '排佛' 사상에서 영향을 받았는데, 韓愈는 「論佛骨表」에서 불교를 전면 배격했다. 하지만, 曾鞏은 韓愈와 마찬가지로 불교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다. 曾鞏이 불교 사상을 비판한 주된 이유는 불교가 民本과 社稷安康에 불리하고 經世致用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曾鞏은 불교나 도교를 비판하면서 주로 사회·민생·국가·유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曾鞏의 亭臺樓閣記에서 「兜率院記」, 「仙都觀三門記」, 「仙都觀三門記」는 闢佛의 태도가 다분한 기문이다.

「兜率院記」는 曾鞏이 불교에 대해 가장 직설적으로 반대하고 비난하는 기문이다. 慶曆 3년(1043)에 지어졌는데, 이때 曾鞏의 나이는 25살로 혈기 왕성하게 글을 쓰던 시절이었다. 표현이 직접적이면서 격렬하고, 가차 없이 불교도를 비난하였는데 불교도들이 常道를 어기고 생산활동을 하지 않으며 백성을 우롱하는 극도로 사치스러운 "머리 없는 도둑(禿賊)"이라고 묘사했다.

> 고대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데 常道가 있어서 백성이 생존하고 상업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스님은 머리를 깎고, 관모를 쓰지 않고 가죽옷을 입고, 쟁기와 베틀을 사용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지 않으며, 기타 기구, 물과 토양과 관련된 그릇, 그 시철의 경영은 직접 실천하지 않다. 君臣・父子・兄弟・夫婦 모두 그들의 부작위는 당연하다고 여겼으며, 그들의 법도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말하는 것은 성인에게만 유독 없는 것이다. 불교는 한나라와 위나라에서 그의 말이 사방에 스며들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더욱 번성하다. 백리 떨어진 縣에서 그의 제자들을 위한 사람들은 적게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만 명 이상에 달했고, 궁전 가옥은 백여 채, 대체로 벽과 깊은 집, 화려한 옷을 입고 정밀한 음식을 먹었으며, 수레와 말의 사치스러움, 봉지의 군주들은 그들보다 못했다.[33]

「兜率院記」는 兜率院을 위해 쓴 기문이지만, 주요 내용은 院景의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 아닌 불교도들의 죄상을 차곡차곡 헤아려보는 것이다. 서두부터 자고로 통치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어야 하고, 사람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직업이 있어야 하는데, 불교도들은 “털을 제거하고(除毛髮)”, “관을 버리고 가죽옷을 입으며(棄冠帶裘)”, 농사 생산을 스스로 실천하지 않는 “經書의 이론 사상을 멀리하고 도의를 배반하다(離經叛道)”의 행위를 한다고 비판한다. 나아가 불교도들이 백성을 우매하게 만드는 죄는 불법이 화를 다스리고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게 한 것인데, 이것은 유교에서 말하는 “성인의 도(聖人之道)”로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漢魏 이래로 荼毒에 당한 사람들이 많은데, 당시에 특히 심각했다고 보았다. 불교는 신도가 많고, 사찰이 많으면서도 호화로우며, 생활이 매우 사치스러워서 봉토를 가진 군주들조차 그들보다 못하다고 하였다.

分寧縣 성곽 내외에 궁이라 불리는 것이 180여 개가 있다. 兜率院은 서쪽 십리에 세워져 있는데, 그 안의 인원들은 더욱 사치를 부리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端原을 다시 지었고, 마을 사람인 黃庠은 그것을 위해 기문을 지었다. 뒤편에서는 주지 스님이 건축물을 확장할 궁리만 했다. 궁궐은 한가운데에 있고, 재궁, 숙박, 작은 집, 부엌이 양쪽에 분포되어 있으며, 화원 창고는 견고하고 치밀하여 공양과 같은 자본을 조달하는데 사용되며, 하나도 외부로부터 구하지 않는다. 이 일과 관련한 기문 작성을 요청

33) 曾鞏 著, 『曾鞏集』(全二冊): “古者爲治有常道, 生民有常業. 若夫祝除髮毛, 禁棄冠環帶裘, 不撫耜耒機盎, 至他器械, 水土之物, 其時節經營, 皆不自踐, 君臣・父子・兄弟・夫婦皆不爲其所當然, 而曰其法能爲人禍福者, 質之於聖人無有也. 其始自漢魏, 傳挾其言者浸淫四出, 抵今爲尤盛. 百裏之縣, 爲其徒者, 少幾千人, 多至萬以上, 宮廬百十, 大抵穹墉奧屋, 文衣精食, 輿馬之華, 封君不如也.” 陳杏珍・晁繼周 點校, 中國古典文學基本從書, 中華書局, 1984年. P.289.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한 사람은 그의 제자 省懷이다. 34)

曾鞏은 신랄하게 비판을 한 후 비로소 兜率院의 위치와 건설 상황, 그리고 저자가 글을 쓴 이유를 "省懷가 기문을 써 달라고 요청했다(省懷求記)"라고 간단히 설명했을 뿐이다, 그의 창작 목적은 대중이 심하게 속고 있기에 이러한 불교의 폐해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이었다.

「鵝湖院佛殿記」역시 曾鞏의 '闢佛' 기문 중 유명한 작품이다. 曾鞏은 승려 紹元의 요청에 따라 기문을 창작하였다. 曾鞏은 칭송하지 않고 오히려 호되게 비난하는데 전문은 300자에 불과하지만, 국가・사회・백성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토목공사를 크게 벌여 사치를 부리고 재물을 탕진하며 백성을 힘들게 한 불교도들의 죄상을 파헤쳤다.

> 慶曆 모년 모월 모일에 信州 鉛山縣 鵝湖院의 佛殿이 완공되어 승려 紹元이 나에게 와서 記文을 지어줄 것을 청하기에 마침내 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쓴다.35)

> 서쪽 지역에서 전쟁을 시작한 뒤로 天子・宰相과 士大夫들은 계책을 세우느라 수고하고. 재능과 武勇을 지닌 무사들은 그들의 온힘을 다하느라 수고하며, 농업・공업・상업에 종사하는 백성들은 세금을 내느라 수고한다. 그리고 천자는 일찍이 자신이 타는 수레와 후궁을 운영하는 데에 들어가는 여러 비용을 줄였고, 大臣 또한 늘 天子가 하사하는 돈을 사양하며, 士大夫는 혹 국사를 위해 도로 위에서 동분서주하며, 재능과 무용을 지닌 무사들은 혹 절의를 지키다가 죽는 자도 있으며, 농업・공업・상업에 종사하는 백성들은 혹 그들이 의지해 살아가는 가업을 잃는 자도 있다.36)

曾鞏은 글 시작부터 鵝湖院佛殿의 위치와 이 글을 쓰게 된 사연을 밝히고

---

34) 曾鞏 著, 『曾鞏集』(全二冊): "分寧縣郭內外, 名爲宮者百八十餘所, 兜率院在治之西十裏, 其徒尤相率悉力以侈之者也. 其構興端原, 有邑人黃庠所爲記, 其後院主僧某, 又治其故而大之. 殿舍中嚴, 齋宮宿廬庖湢之房, 布列兩序, 廄園困倉, 以固以密, 資所以奉養之物, 無一而外求. 疏其事而來請記者, 其徒省懷也." 陳杏珍・晁繼周 點校, 中國古典文學基本從書, 中華書局, 1984年. P.289-290.

35) 宋基采 譯註, 『譯註唐宋八大家文抄 曾鞏』: "慶曆某年某月日, 信州鉛山縣鵝湖院佛殿成, 僧紹元來求記, 遂爲之記曰" 傳統文化研究會, 2011年. P.392.

36) 宋基采 譯註, 『譯註唐宋八大家文抄 曾鞏』: "自西方用兵, 天子宰相與士大夫勞於議謀, 材武之士勞於力, 農工商之民勞於賦斂. 而天子嘗減乘輿掖庭諸費, 大臣亦往往辭賜錢, 士大夫或暴露其身, 材武之士或秉義而死, 農工商之民或失其業." 傳統文化研究會, 2011年. P.392.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있다. 흥미로운 점은 鵝湖院佛殿이 세워진 시점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慶曆 모년 모월 모일(慶曆某年某月某日)”이라고만 적었다는 점이다. 그가 정말 시간을 알지 못해서였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 紹元이 기문을 써 달라고 했을 때 응당 그에게 鵝湖院佛殿이 세워진 시점을 알려주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기문을 쓸 때의 기본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曾鞏이 잊어버린 것일까? 그렇지도 않다. 曾鞏은 고의로 그렇게 한 것이었다. 鵝湖院佛殿에 대한 曾鞏의 무관심과 鵝湖院佛殿에 대해 글을 써야 하는 내키지 않는 마음을 몇 글자로 표현한 것이다. 이것은 또 서두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에게 기문을 써줄 것을 청한 사람은 紹元이었다. 그래서 글을 썼다.(請予文者又紹元也, 故云耳.)”[37]에 호응함과 동시에 이어질 문장을 칭송에서 강력한 비판으로 바꾸기 위한 포석이기도 한 것이다.

西方用兵 부분은 鵝湖院佛殿 건립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설파한다. 이때 각계각층은 계책을 세우는 데 힘쓰고, 자신이 가진 온 힘을 다하는 데 힘쓰며, 세금을 내느라 힘쓰는 등 국난이 닥치자 모두가 힘과 마음을 썼다. 그렇지만 오직 불교도만이 계책을 세우지 않고 힘을 쓰지 않으며, 세금도 내지 않고 식사와 취침이 자유로웠다. 그리고 불교도들은 그 국난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曾鞏은 이 폐단을 예리하게 살피고는 鵝湖院佛殿에 대해 기문을 쓰는 기회를 빌려 마음속의 불만을 크게 토로하였다. 이 글은 曾鞏이 가진 ‘闢佛’의 사상적 태도를 명확히 보여주고, 국가 대사와 민생 사직에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仙都觀三門記」은 도교와 도관을 비판하는 기문이다. 유교의 법도를 지켰던 글이기도 하다.

曾鞏은 『周易』·『禮記』·『春秋』를 인용하여 ‘三門’이 王城의 표준임을 입증하고 도교의 ‘三門’이 불법이라고 비난했다. 그리하여 유교의 쇠락과 도교의 융성을 개탄하고, 나아가 도교가 융성한 원인을 논술했다.

> 城에서 6,7리 떨어진 곳에서 높은 재를 따라 올라가 그곳에 당도하니, 지대가 도리어 넓고 비옥해서 집을 지을 만하고 농사도 지을 만했는데. 그곳에서 수확하는 곡물

37) 曾鞏著,『曾鞏集』(全二冊), 陳杏珍·晁繼周 點校, 中國古典文學基本從書, 中華書局, 1984年. P.287.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 다른 토양에 비해 곱절이고 가뭄이나 장마의 피해도 없었다. 내가 한번 둘러보고 탄식하기를 “어찌 하늘이 이곳을 세상에 내놓아 道家의 무리에게 편안하게 지내고 또 잘 먹고 살게 하였으며, 세상에 아무런 걱정도 없이 여유롭게 사는 자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곳으로 달려오게 하였단 말인가. 이와 같은 장소가 없었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하였다. 그들의 법이 이처럼 번창하니 인력으로 과연 어떻게 제어할 수 있겠는가?[38] [39]

글에서 살펴볼 수 있듯, 曾鞏은 도교가 융성한 원인으로 도교가 유리한 자원인 비옥한 땅을 차지해 많은 민중의 생계를 장악하고 있다는 점, 정신적으로 민중의 마음을 위로해줌으로써 독실한 신자로 만든 점 등을 들었다. 도교는 생활과 정신에서 민중의 요구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빠르게 융성할 수 있었다. 曾鞏은 여기에서 도교의 융성에 대한 논의 외에도, 도교가 良田 자원을 대량으로 점유하고 사치스럽게 도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다. 유교의 쇠락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 曾鞏은 이 글을 통해 유교의 大義를 천하에 알리고, 보는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기를 바란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2) 贊佛의 태도

曾鞏은 ‘贊佛’ 함으로써 유교를 되돌아보고 독자로 하여금 반성하게 할 수 있는 주제의 글을 썼다. 曾鞏이 불교와 도교의 교도를 긍정하거나 찬양하는 것을 통해 曾鞏이 유교에 대해 가지고 있던 견해를 살펴볼 수 있다. 불교의 바람직한 점을 찬양함으로써 유교의 부족함을 되새긴 것이다. 이와 관련된 작품으로 「分寧縣雲峯院記」, 「菜園院佛殿記」, 「金山寺水陸堂記」, 「江州景德寺新戒壇記」가 있다.

「分寧縣雲峯院記」는 불교 승려를 칭송하는 기문이다. 창작 시기는 「兜率院記」와 일치하며, 모두 慶曆 3년(1043)에 창작한 것이다. 그러나 「分寧縣雲峯院

38) 宋基采 譯註. 『譯註唐宋八大家文抄 曾鞏』, 傳統文化研究會, 2011年. P.395.
39) 曾鞏 著, 『曾鞏集』(全二冊): “距城六七裏, 由絕嶺而上, 至其處, 地反平寬衍沃, 可宮可田. 其穫之多, 與他壤倍, 水旱之所不能災. 予嘗視而歎曰: ‘豈天遺此以安且食其衆, 使世之衍衍施施, 趨之者不已歟? 不然, 安有是邪?’ 則其法之蕃昌, 人力固如之何哉?” 陳杏珍・晁繼周 點校, 中國古典文學基本從書, 中華書局, 1984年. P.274.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記」에서 曾鞏은 불교에 대해 「兜率院記」만큼 격렬하게 비난하지 않았다. 曾鞏은 승려 道常이 사원을 호화롭게 지었고, 사용한 자재도 진귀한 것이었으나 비난받지 않았다고 약술한다. 도리어 道常이 “배운 바에 잠식되지 않고(不汨溺其所學)”, 부지런히 생활했으며, 선행과 보시를 즐기고 담박하여 쟁의가 없는 품성을 지녔다고 찬양했다.

이 글의 특별한 점은 曾鞏이 많은 양의 필묵을 사용하여 分寧縣 사람들의 풍습을 묘사하고 그들이 어떻게 ‘勤生’·‘嗇施’·‘薄義’·‘喜爭訟’을 했는지 묘사했다는 것인데 이러한 민풍은 현지인의 골수에 깊이 파고들어 다른 州縣과 비할 바가 아니었다. 曾鞏은 이를 통해 사회·국가 통치에 대해 “縣令長과 그의 보좌들이 즐비하여 항상 이런 풍속을 다스리고 교화하여 변화시키기는 어려움을 근심한다.(故縣令長佐吏比肩, 常病其未易治敎使移也.)[40]”는 우려를 토로했다. 이 글에서 민풍과 민속의 교화와 통치에 대한 曾鞏의 사상을 알 수 있다. 이는 유교가 ‘백성을 교화함으로써 통치 효과를 얻는 통치 수단인 점(寓治於敎)’과 ‘도덕적 구속을 통하여 백성을 교화시키는 효과를 거두는 통치 수단인 점(道德敎化)’이라는 정치이론을 내세워 치국의 근본을 구현한 것이다. 다음은 曾鞏이 승려 道常에 대한 찬사이자 曾鞏이 불교도들의 이런 우수한 품행을 인정한 표현이다.

> 내 듣건대, 道常은 기질이 비범하여 비록 佛學을 탐구하여 그의 기본 사고가 禮義와 부합되지는 못하지만, 생계를 꾸려가는 일을 폐하지 않아 그 근면함이 또한 그 지방의 습속과 걸맞았다. 재물이 여유가 있으면 곧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자질구레하게 따지거나 아까워하지 않았으며 담박한 것을 좋아하여 세속의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하니, 그렇다면 또 남을 위해 베푸는 데에 인색하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그 지방의 습성을 벗어난 것 같아 언급할 만하였다. 어떤 사람은 “만약 그 사람이 佛學에 빠지지 않아 그 기본 사고가 오로지 禮義와 부합된다면, 걸출한 자질로 그 고을 사람들을 인도할 자는 반드시 道常일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내가 감히 단정할 수가 없다.[41] [42]

---

40) 曾鞏 著, 『曾鞏集』(全二冊), 陳杏珍·晁繼周 點校, 中國古典文學基本從書, 中華書局, 1984年. P.272.

41) 宋基采 譯註, 『譯註唐宋八大家文抄 曾鞏』, 傳統文化研究會, 2011年. P.398.

42) 曾鞏 著, 『曾鞏集』(全二冊): “吾聞道常氣質偉然, 雖索其學, 其歸未能當於義, 然治生事不廢, 其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曾鞏은 雲峯院의 상황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道常의 쾌활함과 담백함, 즐겨 희사하는 품질을 칭찬하는데 중점을 두었는데, 이는 分寧縣의 사람들의 이미지와 아주 상반되어 둘의 대조를 이룬다. 曾鞏이 道常을 찬양한 중요한 이유는 "道常을 칭찬할 만한 점을 드러내어 칭찬하고 현지인들에게 각인시키면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爲申其可言者寵嘉之, 使刻示邑人, 其有激也.)" [43]라고 했는데, 그 목적은 分寧縣을 다스리는 관리들에게 '敎化'의 모범적인 대상을 지적해 주기 위함이었다. 分寧縣 사람들이 자극받아 道常처럼 변할 수 있기를 바란 것이다.

「菜園院佛殿記」는 佛殿을 기록한 亭臺樓閣記이자 이치를 설파하는 글이다. 曾鞏은 菜園院佛殿의 건립을 계기로 승려 可棲와 제자들이 10년간 불전을 짓기 위해 노력한 정신을 칭찬하면서 유교 제자들에게 '성인의 도(聖人之道)'를 배울 때 능률에만 매달리지 말고 정성을 다하라고 충고하였다. 이렇게 하면 "그러므로 작은 것을 크게 이루고, 어려운 것을 쉽게 만들기를 잘하여 그들이 하는 일이 의도한 대로 되지 않은 것이 없게(故善以小致大, 以難致易, 而其所爲, 無一不如其志者)" [44]되고, 그렇지 않으면 "진실로 한때의 이익을 창출해내면 그뿐이다. 어찌 평생 쉬지 않고 교화를 베풀어 먼 후일에 성과가 있기를 기다릴 수 있겠는가.(苟一時之利耳, 安能必世百年, 爲敎化之漸, 而待遲久之功哉!)" [45]와 같이 될 것이다.

曾鞏은 텃밭의 최초 상황을 소박한 어구로 묘사하고, 불전이 무에서 유로 창조되고, 승려 可棲와 제자가 10년 동안 재물을 모아 불전을 지은 경과를 기록하고, 그들이 "구차하게 이루려 하지 않고, 빠른 효과를 바라지 않는다.(不肯苟成, 不求速效)" [46]며 서서히 목표를 도모하려는 고수하는 지조를 찬양하였다. 曾鞏은 불교를 부정하는데만 그치지 않고 불교도들의 장점도 객관적으로 본 셈이다. 아래의 내용은 그의 이런 태도를 볼 수 있다.

勤亦稱其土俗. 至有餘輒斥散之, 不爲黍累計惜, 樂淡泊無累, 則又若能勝其嗇施喜爭之心, 可喜也. 或曰, 使其人不汩溺其所學, 其歸一當於義, 則傑然視邑人者, 必道常乎? 未敢必也." 陳杏珍・晁繼周 點校, 中國古典文學基本從書, 中華書局, 1984年. P.272-273.

43) 曾鞏 著, 『曾鞏集』(全二冊), 陳杏珍・晁繼周 點校, 中國古典文學基本從書, 中華書局, 1984年. P.273.

44) 宋基采 譯註, 『譯註唐宋八大家文抄 曾鞏』, 傳統文化研究會, 2011年. P.400.

45) 宋基采 譯註, 『譯註唐宋八大家文抄 曾鞏』, 傳統文化研究會, 2011年. P.400-401.

46) 曾鞏 著, 『曾鞏集』(全二冊), 陳杏珍・晁繼周 點校, 中國古典文學基本從書, 中華書局, 1984年. P.28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내가 보건대, 불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무슨 일을 할 때 모두 힘을 들이기를 부지런히 하고 고심하기를 전일하게 하면서 거칠게 일을 마무리하려 하지 않고 빠른 효과를 바라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작은 것을 크게 이루고, 어려운 것을 쉽게 만들기를 잘하여 그들이 하는 일이 의도한 대로 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이는 어찌 그들의 설교가 족히 사람을 움직일 만하여 그런 것일 뿐이겠는가. 그 속에 또 지혜가 있어 그런 것이다. 예컨대 可棲가 황폐한 땅을 다듬어 佛殿을 지을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민간에서 한 푼 두 푼 정성껏 모아 10년이란 세월을 지루하게 여기지 않고 마침내 그 뜻을 이루었으니. 그가 스스로 노력하여 목적을 달성한 것이 어찌 지혜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47] [48]

이 글을 통해 曾鞏은 불교가 융성한 까닭과 더불어 유교가 도교보다 융성하지 않고 쇠퇴한 원인을 고찰하고 있다. 그가 생각한 불교가 융성한 까닭은 불교에 살림꾼과 제자들처럼 잘 지키는 인재가 많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유교의 쇠락의 원인에 대해서 "儒者의 경우는 聖人의 도리를 학습하여 으뜸이라고 자부하다가 천하의 일을 맡게 되면 부지런히 실천하는 의지와 굳게 지키는 지조가 전혀 없다.(習聖人之道, 旣自以爲至矣, 及其任天下之事, 則未嘗有勤行之意, 堅持之操.)" [49] 고 되짚었다. 그래서 曾鞏은 이 글의 목적에 대해 "그들의 재능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儒者의 道가 세상에 행해지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자는 것이다.(不獨以著其能, 亦愧吾道之不行也.)" [50]라고 하고 있으며, 세상의 유학자들이 글에서 깨달음을 얻어 현재 상황을 바꾸어 유자의 도를 융성하게 하기를 바라고 있다.

「金山寺水陸堂記」도 曾鞏이 불교의 장점을 칭찬한 기문 중 하나이다. 曾鞏은 승려 瑞新이 금산사를 다시 짓게 된 경과를 서술하였다. 金山의 좋은 환경, 관람할 때의 좋은 위치 등을 칭찬하였다. 曾鞏이 유람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할 때,

47) 宋基采 譯註, 『譯註唐宋八大家文抄 曾鞏』, 傳統文化研究會, 2011年. P.400.
48) 曾鞏 著, 『曾鞏集』(全二冊): "吾觀佛之徒, 凡有所興作, 其人皆用力也勤, 刻意也專, 不肯苟成, 不求速效, 故善以小致大, 以難致易, 而其所爲, 無一不如其志者, 豈獨其說足以動人哉? 其中亦有智然也. 若可棲之披攘經營, 攩摭纖悉, 忘十年之久, 以及其志之成, 其所以自致者, 豈不近是哉? " 陳杏珍・晁繼周 點校, 中國古典文學基本從書, 中華書局, 1984年. P.280.
49) 宋基采 譯註, 『譯註唐宋八大家文抄 曾鞏』, 傳統文化研究會, 2011年. P.400.
50) 宋基采 譯註, 『譯註唐宋八大家文抄 曾鞏』, 傳統文化研究會, 2011年. P.401.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金山寺는 이미 화재로 소실된 상태였다. 그러나 얼마 후 승려 瑞新은 신흥에서 크고 넓은 사관을 지었다.[51]을 지었다. “이것은 천하를 감동시킬 만한 佛法이 아니라, 瑞新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내가 일찍이 그가 일에 직면했을 때 침착하다고 칭찬했고, 그의 재능은 분명히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완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此非徒佛之法足以動天下, 蓋新者, 余嘗與之從容, 彼其材且辨有以動人者, 故成此不難也.)”[52]고 했다. 曾鞏은 그의 빠른 건축 속도에 감탄했고 불교의 인재가 넘쳐나며, 사찰을 건축함에 있어서 그들의 집념과 정성에 감탄했다. 曾鞏은 “한꺼번에 무너졌지만, 후세 사람들은 瑞新처럼 다시 건설할 수 없었던(夫廢於一時, 而後人不能更興者.)”[53]원인을 성찰하였는데, 그 원인으로 인재가 부족한 것을 들었다. 유교를 부흥시키려면 瑞新와 같은 인재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曾鞏은 한 사찰의 ‘廢’와 ‘興’으로부터 유교의 ‘廢’와 ‘興’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는데, 이는 유교를 부흥하는 것에 대한 근심과 책임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江州景德寺新戒壇記」는 또한 위의 작품처럼 曾鞏이 승려 智暹이 20년 동안 꾸준히 景德寺를 건설한 일을 서술하고 있다. 智暹은 개인의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먹는 것이 간단하고 옷차림이 투박하며 사는 집이 망가져도 수리하지 않아 남에게서 받은 모든 돈을 이 절을 짓는 데 썼고(食淡衣粗, 所居屋壞不自治, 所得於人惟資治其寺.)[54]”, 절을 건설하기 위해 20년 동안 “밤낮으로 근면함을 마다하지 않았으며(不舍其晝夜之勤)”[55], “올해 67세가 되었는데도 절을 경영하는 일은 처음처럼 꾸준하다.(今年六十有七矣, 其經營寺事, 不懈如初.)”[56]고 찬양하였다.

요약하면, 불교에 대한 曾鞏의 태도는 비판적이든 긍정적이든 항상 객관적이고

51) 曾鞏 著, 『曾鞏集』(全二冊):“山之穹堂奧殿, 瑰傑之觀.” 陳杏珍・晁繼周 點校, 中國古典文學基本從書, 中華書局, 1984年. P.287.
52) 曾鞏 著, 『曾鞏集』(全二冊), 陳杏珍・晁繼周 點校, 中國古典文學基本從書, 中華書局, 1984年. P.287.
53) 曾鞏 著, 『曾鞏集』(全二冊), 陳杏珍・晁繼周 點校, 中國古典文學基本從書, 中華書局, 1984年. P.287.
54) 曾鞏 著, 『曾鞏集』(全二冊), 陳杏珍・晁繼周 點校, 中國古典文學基本從書, 中華書局, 1984年. P.313.
55) 曾鞏 著, 『曾鞏集』(全二冊), 陳杏珍・晁繼周 點校, 中國古典文學基本從書, 中華書局, 1984年. P.313.
56) 曾鞏 著, 『曾鞏集』(全二冊), 陳・杏珍・晁繼周 點校, 中國古典文學基本從書, 中華書局, 1984年. P.313.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융통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 목적은 사회와 국가, 백성의 이익과 더불어 유교에 대해 성찰하고 옹호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불교가 사치를 부리고 백성을 힘들게 하는 부정적인 면을 객관적으로 보았다. 그리고 인재가 넘쳐나는 불교가 자기 사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긍정적인 면을 보았으며, 불교의 융성을 분석하여 유교가 쇠락한 원인을 되돌아보고 부흥의 방법을 모색하였다. 曾鞏은 개탄한 나머지 자기반성을 하여 유교를 진흥시키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고, 위의 기문을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를 희망하였는데, 유학자들에게 이를 교훈으로 삼거나 참조 학습하기를 권하고자 했다.

2. 인생 포부 및 추구

曾鞏은 亭臺樓閣의 이름을 빌려 자신 또는 타인의 생애·사적을 기술한 것을 통해 자신의 포부를 서술하거나 선현을 추앙하고, 절개를 찬양하며, 사리를 밝히기를 권장하거나, 인문학적 성찰 등의 사상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기문은 曾鞏의 인생이나 정치적 포부, 취향 추구 등을 탐구할 수 있다.

1) 인생 포부

曾鞏은 선현의 사적, 혹은 자신의 생애를 빌려 의론을 전개하여 유교의 道를 융성하게 하고 자신의 인생 포부를 표현하는 목적을 달성한다.

「厄臺記」, 「墨池記」, 「學舍記」와 「南軒記」에서 曾鞏은 先賢이나 자신의 사적을 기술하여 자신의 학업이나 벼슬길에 오르는 인생의 포부를 드러냈으며 이런 글들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격려했다. 먼저 「厄臺記」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厄臺記」는 曾鞏이 厄臺를 통해 孔子가 陳나라 땅에서 곡식이 다 떨어진 어려움을 서술하였다. 공자와 역대 왕들이 고난을 겪으며 대업을 이룬 사례를 들어 “군자는 곤궁하지 않으면 왕업을 이루지 못한다.(君子不困, 不成王業)” 는 뜻을 밝히며 역경에 처해도 뜻을 굽히지 않는 선현들의 정신을 추앙하였다. 동시에 선현들을 후세를 인도하는 모범으로 삼았으며, 나아가 후세 학자들에게 선현을 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우기를 권하였다.

曾鞏은 “천지가 순탄하려면 먼저 거역하고, 해와 달이 밝으려면 먼저 어두워진다. 천지가 거역하지 않으면, 만물이 어찌 대덕을 알 수 있겠는가?(夫天地欲泰而先否, 日月欲明而先晦. 天地不否, 萬物豈知大德乎?)”[57]라고 하며『易經』 중의 제 11괘 ‘泰卦’[58]와 제 12괘 ‘否卦’[59]를 日月의 ‘明’, ‘晦’로 천지자연의 否極泰來[60]의 법칙을 논증한다. 역대의 先賢들을 추앙하는 것은 모두 고난과 시련을 거쳐 비로소 큰 것을 성취했기 때문이다. “행운만 있을 뿐 악운은 없는데, 어찌 성인의 심지를 드러낼 수 있겠는가? 밝음만 있고 어두움은 없는데 어찌 성인의 도를 구현할 수 있겠는가?(泰而不否, 豈見聖人之志乎? 明而不晦, 豈見聖人之道乎?)”[61]라고 말하였다. 曾鞏은 先賢들이 고난을 겪을 때, 그들의 의지와 도리를 더 잘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천지자연 불변의 이치와 역사적 사례를 통해 유교의 先賢들의 깨달음에 대한 존중과 믿음을 나타냈다. 曾鞏은 이를 통해 자신과 다른 학자들을 격려했다.

「墨池記」는 曾鞏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다. 茅坤은 “주제가 사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문장을 구성하는 규모가 심원하고 엄정한 것을 엿볼 수 있다.(看他小小題, 而結構卻遠而正.)”[62]고 이 글을 평가하였다. 曾鞏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사물에서 접점을 찾아 기술할 때 이치를 설명하거나 의론하여 그 기문의 창작 목적을 달성하였다.

이 글은 曾鞏이 撫州州學 王盛의 요청에 따라 쓴 것이다. 전문은 王羲之의 묵지 유적에 대한 전설을 제재로 삼았는데, 曾鞏은 王羲之가 연못 가까운 곳에서

57) 郭預衡 著, 『唐宋八大家散文總集: 蘇洵・曾鞏』, 第4卷, 河北人民出版社, 1995年. P.2928.
58) 徐子宏 編, 周易『上經』(泰卦 第十一): “천지 교감은 태괘의 괘상이다.군자는 이 괘상을 보고, 천지 운행의 법칙을 재량하여, 천지의 造化를 보조함으로써, 천하 만민을 지배한다.(天地交, 泰. 後以財成天地之道, 輔相天地之宜, 以左右民.)” 臺灣古籍出版社, 2002年, P.78.
59) 徐子宏 編, 周易『上經』(否卦 第十二): “소인의 간극에 빠지는 것은 군자에게 불리한 점괘이며, 사업도 성쇠에서 쇠퇴로 바뀔 것이다.(否之匪人, 不利君子貞, 大往小來.)” 臺灣古籍出版社, 2002年, P.83.
60) 否極泰來는 “역경이 극에 달하면 순경으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나쁜 운이 다하면 행운이 온다는 뜻이다.(逆境到了盡頭就會轉為順境. 厄運終而好運至.) ”泰卦는 否卦의 卦象 구조가 반대인데,『周易』의 上九에서는 “짧은 악운은 먼저 악운을 만난 후에 행운을 만난다.(『周易』: 上九: 傾否, 先否, 後喜.)”고 말했다. 『象辭』에서는 “이제 곧 액운이 끝나는데, 그것이 사람들을 억압하는 시간이 어떻게 길어질까?(<象>曰: 否終則傾, 何可長也?)” 徐子宏 編, 周易『上經』(否卦 第十二), 臺灣古籍出版社, 2002年, P.87.
61) 郭預衡 著, 『唐宋八大家散文總集: 蘇洵・曾鞏』, 第4卷, 河北人民出版社, 1995年. P.2928.
62) 宋基采 譯註, 『譯註唐宋八大家文抄 曾鞏』, 傳統文化研究會, 2011年. P.356.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서예를 배운 후 붓과 벼루를 씻어서 연못의 물을 검게 물들인 이름다운 이야기로 글을 시작하며 王羲之의 서예가 만년에 이르러서야 완성된 것은 그가 열심히 노력하여 이룬 것이지 하늘이 이루어 준 것이 아님을 밝혔다. “사람이 한 가지 재주를 가지고 있으면, 후세 사람들이 이처럼 그를 존경하게 할 수 있다.(夫人之有一能, 而使後人尙之如此.)” 63)는 말로 후세의 학자들이 王羲之를 본보기로 삼아 집중・견지・학습하도록 독려하였다. 曾鞏은 서예론 및 학습에서 도덕으로 논의를 확장했다. 曾鞏은 서예에서 시작하여 학습을 논하고 거기에서 도덕 수양으로 범위를 넓혀 “하물며 인자한 사람과 웅대한 의지를 가진 군자들이 남긴 풍습과 미덕이 후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況仁人莊士之遺風餘思, 被於來世者, 如何哉?)” 64)라며 글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전편에는 일을 기록하여 이치를 논하고 사리를 다해 托物言志65)하여 세상 사람을 격려하였다.

이 글을 쓸 때 曾鞏은 29세의 나이로 가정사가 순탄치 않아 삶의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있었지만, 그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宋史・曾鞏傳』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계모를 모시면서 집안이 기울어 의지할 곳 없이 넷째 동생과 아홉째 여동생을 키우며, 그들의 공부・출사・혼인을 모두 曾鞏 혼자 힘으로 처리하였다.” 66)고 기록하고 있다. 그의 「學舍記」, 「南軒記」에도 이 시기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러한 경험과 신세는 힘든 과거를 가진 曾鞏이 생활・사회・개인의 미래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생각을 일찍 성숙하게 하였다. 이러한 曾鞏의 사상은 「墨池記」에 잘 나타나 있다. 이 글은 王羲之의 일화를 빌어 이치를 설파해 후학을 격려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을 격려한 글이라 볼 수 있다.

「學舍記」와 「南軒記」는 曾鞏 자신의 인생・이상・포부를 자술한 두 편의 서재 기문이다. 자기 반평생의 어렵고 힘든 경험을 진술하는 것에서부터 도덕적인 글과 심신의 완벽을 추구하는 지향점까지 고금의 문장 대가들과 어깨를 나란

63) 曾鞏 著, 『曾鞏集』(全二冊):, 陳杏珍・晁繼周 點校, 中國古典文學基本從書, 中華書局, 1984年. P.280.
64) 曾鞏 著, 『曾鞏集』(全二冊), 陳杏珍・晁繼周 點校, 中國古典文學基本從書, 中華書局, 1984年. P.280.
65) 托物言志는 흔히 볼 수 있는 표현 기법으로, 寄意于物이라고도 하며, 시인이 象征이나 起興 등의 수법을 사용하여 객관적인 사물의 어느 한 측면의 특징을 묘사함으로써 작가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작품의 취지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66) 元 脫脫 主編, 『宋史』, 列傳第七十八, 卷三百一十九: “父亡, 奉繼母益至, 撫四弟九妹於委廢單弱之中, 宦學婚嫁, 一出其力.” 中華書局, 1977年. P.10392.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히 하고 싶은 이상을 표현하였다. 또한, 이것은 曾鞏의 삶의 포부・이상・의지, 심지어는 그의 성격과 성품까지도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글이기도 하다.

「學舍記」는 서재 기문이기도 하지만, 서재 기문의 범주에서 벗어나기도 하였다. 전문은 "마침내 집에서 쉬며 근처 초가에 가서 글을 읽었다. 어떤 이는 이 초가집이 너무 낮은 것을 흠잡고, 어떤 이는 그곳이 협소하다고 말하기도 하였다.(乃休於家, 而卽其旁之草舍以學. 或疾其卑, 或議其隘者.)"[67]와, "나는 골목의 누추한 집에서...(予之卑巷窮廬...)"[68]라는 두 마디만 서재를 직접 언급했으며, 나머지는 고된 반평생을 살다가 때마침 집안의 변을 만나 생계를 위해 뛰어다녔고, 홀로 가족생활의 소소한 추억을 짊어지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曾鞏이 "기력이 쇠하고(力疲)" ・ "의지가 사라지고(意耗)" ・ "몸이 많이 아픈(多疾)" 상황 속에서도 안빈낙도하며 줄곧 끈기 있게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은 사람들을 숙연하게 한다. 曾鞏은 노심초사하면서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자신의 인생 이상을 고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는 어릴 적에 선생에게 글을 배웠지만 이때 한창 가족의 어린아이들과 함께 소꿉장난도 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노느라 글 읽는 것을 좋아할 줄 몰랐다. 16, 7세 때에 六經에 들어 있는 말과 고금 작가들의 문장을 보고 그 안에 일반 사람을 초월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비로소 그것들을 좋아할 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나는 이와 같은 문장을 쓴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야겠다고 결심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에 맡아서 해야 할 家事 또한 많아졌다... [69] [70]

글의 첫머리에서 曾鞏은 어린 나이에 글을 배우는 장면을 이야기하며, 자신이 열여섯, 열일곱 살 때 先賢에게 배우고 고금의 문장 대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 그러나 야망이 아직 실현되기도 전에 "집안에 일이 늘어 갔다(家事滋生)"며 어쩔 수 없이 사방으로 뛰어다녔고, 가는 길에 어려움

67) 宋基采 譯註, 『譯註唐宋八大家文抄 曾鞏』, 傳統文化研究會, 2011年. P.386.
68) 宋基采 譯註, 『譯註唐宋八大家文抄 曾鞏』, 傳統文化研究會, 2011年. P.386.
69) 宋基采 譯註, 『譯註唐宋八大家文抄 曾鞏』, 傳統文化研究會, 2011年. P.384-386.
70) 曾鞏 著, 『曾鞏集』(全二冊): "予幼則從先生受書, 然是時, 方樂與家人童子嬉戲上下, 未知好也. 十六七時, 闚六經之言與古今文章, 有過人者, 知好之, 則於是銳意欲與之並. 而是時, 家事亦滋出..." 陳杏珍・晁繼周 點校, 中國古典文學基本從書, 中華書局, 1984年. P.284.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과 험난함, 생활의 어려움, 아버지를 여읜 슬픔 등 가족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曾鞏은 매우 평온하고도 냉정한 방식으로 그의 힘든 인생 전반기를 이야기한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증공의 침착하고도 내향적인 성격과 매우 관련이 깊으며, 행간에 드러나는 隱忍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탄식하게 한다.

曾鞏의 당시 상황을 이해하면 그의 어려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曾鞏이 이 글을 썼을 때가 그의 나이 36세였다. 曾鞏은 이미 두 번의 시험에서 낙방하였고, 귀향 후 중병에 걸려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하였다. “심할 때는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 그해 가을, 폐병이 그의 목숨을 거의 앗아갈 뻔하였다.(重時甚至臥床不起.....這年秋天, 肺病幾乎奪去了他的生命.)”[71] 曾鞏은 「代書寄趙宏」에서 “당시 병석에 누워서 나오지 못했는데, 해가 동풍에 기대어 동조하려 하였다.(當時病臥不能出, 日倚東風想同調.)”[72]고 하였고, “따라가려다 병 때문에 못했는데... 그때 폐병이 더 심해졌다.(身欲追隨病未能...是時肺氣壯更惡)”[73]고 말하였다. 그러다가 오랜 병이 막 나아서 아버지를 따라 상경했는데, 그의 아버지가 갑자기 병이 나서 돌아가셨다. 曾鞏은 극도로 가난하여 아버지를 고향으로 보내 안장하는 비용마저도 없었는데 다행히 杜衍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 고향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형도 죽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중책이 모두 曾鞏에게 맡겨졌다. 노약자였던 계모를 같이 돌봐야 했고, 남동생 네 명과 여동생 아홉 명을 길러야 했다. 몸소 농사지으며 가족 생계를 꾸려가야 하였고, 남동생들의 교육, 여동생들의 결혼까지 챙기면서 자기 공부를 계속해야 했던 어려움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曾鞏은 가난하고 바쁜 현실 속에서도 이상을 포기한 적이 없었다. 병이 들거나 바쁜 와중에도 틈을 내어 공부와 글쓰기 등에 몰두했다. 葉嘉瑩은 “한 사람의 진정한 수양, 품격, 감정, 절조는 고난 속에서만 드러날 수 있다 ”[74]고 말했다.

---

71) 王琦珍 編, 『曾鞏評傳』, 江西高校出版社, 1990年. P.9-10.
72) 曾鞏 著, 『曾鞏集』(全二冊), 陳杏珍・晁繼周 點校, 中國古典文學基本從書, 中華書局, 1984年. P.37.
73) 曾鞏 著, 『曾鞏集』(全二冊), 陳杏珍・晁繼周 點校, 中國古典文學基本從書, 中華書局, 1984年. P.37.
74) 葉嘉瑩 著, 『唐宋詞十七講・歐陽脩』: “一個人真正的脩養, 品格・感情・操守, 是要在苦難中才能夠表現出來的.” 北京大學出版社, 2007年. P.317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또한 曾鞏은 시종일관 “삼군에게서 장수를 빼앗을 수 있지만 匹夫에게서 의지를 빼앗을 수는 없다.”[75]는 聖人들의 가르침으로 자신을 다독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성격의 글로 「南軒記」라는 작품이 있다. 「南軒記」는 자신의 인생 포부를 서술한 또 다른 기문이다. 이 글은 「學舍記」와 같은 해에, 같은 배경이고, 심지어는 기록의 대상인 서재도 같지만, 서술 방식과 내용은 사뭇 다르다. 둘 다 글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서재를 매우 간략하게 언급해 직접적인 묘사가 거의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 양자의 내용과 표현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學舍記」의 전반부는 회상이자 서술 부분이며, 진술에 담론을 섞어 자신의 의지와 추구를 표현하는 데 반해, 「南軒記」는 서술 부분은 적지만, 의론 부분을 확대하여 聖人과 같이 자신에게 요구하고 의지를 굽히지 않겠다는 자신의 결의를 표현한다.

> 근처에 풀이 우거진 땅을 얻어 울타리로 에워싼 뒤에 그 사이에 대나무와 灌木・채소 등을 심고 초가집을 한 채를 지어 휴식을 취하니 한가롭고 즐겁다. 세상에 진실로 조정의 존귀한 지위에 앉아 있고 황제의 부유한 재력과 서로 겨룰 만한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나는 지금의 내 처지와 바꾸기를 원치 않는다.[76] [77]
>
> 사람의 개성은 같지 않다. 그래서 나는 궁벽한 곳에서 한가롭게 은거하는 것이 내 개성에 가장 맞는다는 것을 알았다.[78] [79]

글의 서두에서 南軒의 위치・상황 및 역할을 설명하였다. 曾鞏은 처음부터 시골에 살면서 스스로 즐거움을 얻었다고 강조했고, 심지어는 조정에 있는 높은 관료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와도 그들과 자리를 바꾸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로써 어려운 상황에서도 굽히지 않는 曾鞏의 성격을 알 수 있다.

---

75) 欒貴川 編, 『孔子的脩齊治平之道』: “三軍可奪帥也, 匹夫不可以奪志也.”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6年. P.287.

76) 宋基采 譯註, 『譯註唐宋八大家文抄 曾鞏』, 傳統文化研究會, 2011年. P.388.

77) 曾鞏 著, 『曾鞏集』(全二冊): “得鄰之莽地蕃之, 樹竹木灌蔬於其間, 結茅以自休, 囂然而樂. 世固有處廊廟之貴, 抗萬乘之富, 吾不願易也.” 陳杏珍・晁繼周 點校, 中國古典文學基本從書, 中華書局, 1984年. P.285.

78) 宋基采 譯註, 『譯註唐宋八大家文抄 曾鞏』, 傳統文化研究會, 2011年. P.388.

79) 曾鞏 著, 『曾鞏集』(全二冊): “人之性不同, 於是知伏閒隱奧, 吾性所最宜.” 陳杏珍・晁繼周 點校, 中國古典文學基本從書, 中華書局, 1984年. P.285.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러나 어머니를 부양하고 동생들을 키우는 현실은 曾鞏이 바라는 대로 할 수 없게 하였다. 나아가 曾鞏은 “선비는 본디 부지런해야 할 일도 있고, 최선을 다해야 할 일도 있으며, 이것이 모두 하늘에서 받은 것임을 깨닫고 순종한다.(士固有所勤, 有所肆, 識其皆受之於天而順之.)” [80]고 스스로를 격려하고 위로하였으며, 자신의 의지가 깊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돌이켜보면 모두 높고 원대하다.(顧吾之所好者遠.)” [81]라고 하여 자신이 초가집에 거처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였다. “六經・諸子百家・史家의 저술과 箋疏를 단 책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품평하고 추악한 현상을 풍자하며, 미세한 것에 감명을 받아 깊이 기탁하고, 벼랑과 묘석에 새겨지며, 과장되고 기괴한 문장들을 읽었으며, 아래로는 兵書・曆法・星象・樂工・農事・栽培・方言・地理志와 불교와 도교의 경전(六藝百家史氏之籍, 箋疏之書, 與夫論美刺非・感微託遠・山鑵塚刻・浮誇詭異之文章, 下至兵權・曆法・星官・樂工・山農・野圃・方言・地記・佛老所傳.)” [82]등은 모두 이 초당에서 읽은 것이다. 이를 통해 曾鞏이 독서에 심혈을 기울이고 광범위하게 섭렵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읽은 책 중 “磨崖名과 과장되고 기괴한 문장, 천문・불교와 도교의 경전(山鑵・浮誇詭異之文章・星官・佛老所傳)” 등이 있는데, 모두 曾鞏이 스스로 연구한 책들이다. 따라서 曾鞏은 불교와 도교를 완전히 배척한 것은 아닌데, 曾鞏이 異教를 배제하였다기보다는 유교의 經世致用과 積極入世[83]의 사상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글의 뒷부분에서 曾鞏은 先賢들의 서적을 읽고 聖人의 도리를 배워 배움의 목적을 달성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때를 만나면 세상에 나가 도를 행해야 하니 깊은 산골을 지키고 나가지 않는 것은 잘못이고, 때를 얻지 못하면 멈춰야 하니 허둥대면서 그 도를 행하기를 구하는 것도 잘못이다.(得其時則行, 守深山長谷而不出者, 非也. 不得其時則止, 僕僕然求行其道者, 亦非也.)” [84]라고 말하는 것은 은일이 曾鞏의 궁극적

80) 曾鞏 著, 『曾鞏集』(全二冊), 陳杏珍・晁繼周 點校, 中國古典文學基本從書, 中華書局, 1984年. P.285.
81) 曾鞏 著, 『曾鞏集』(全二冊):, 陳杏珍・晁繼周 點校, 中國古典文學基本從書, 中華書局, 1984年. P.285.
82) 曾鞏 著, 『曾鞏集』(全二冊), 陳杏珍・晁繼周 點校, 中國古典文學基本從書, 中華書局, 1984年. P.285.
83) 積極入世은 유교가 倡導하는 정신으로서 국가, 사회, 정치의 思想과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주장한다. 즉 유교가 제창하는 脩身, 齊家, 治國, 平天下의 入世精神이다.
84) 宋基采 譯註, 『譯註唐宋八大家文抄 曾鞏』, 傳統文化研究會, 2011年. P.390-391.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인 추구가 아니라 수신・치국을 적극적으로 추구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曾鞏은 유교의 도리 중에서 “나아갈 수 있으면 나아가고, 멈출 수 있으면 멈춘다.”[85]는 처세관을 굳게 믿고 따랐고, 그것을 실천하였다.

2) 은일 추구

亭臺樓閣記의 은일 추구를 반영한 것으로, 曾鞏은 자신이나 타인이 여가를 즐길 때 亭臺樓閣에 관한 기문을 기록하여 자신이나 묘사 대상의 한적함, 산수의 즐거움, 취향, 감정을 표현하는 데 사용한다. 「醒心亭記」, 「道山亭記」, 「齊州二堂記」에서는 모두 曾鞏의 은일 생활의 추구를 반영하였다.

「醒心亭記」는 曾鞏이 지은 이러한 글의 대표작이다. 曾鞏은 慶曆 7년(1047년) 歐陽脩를 방문하였는데, 이 글은 歐陽脩의 부탁으로 창작되었다. 글은 歐陽脩와 지인의 ‘정자에 올라 산수를 유람하다(登亭遊山)’ 하는 것의 즐거움을 묘사함으로써, 歐陽脩가 나라와 백성을 근심하며 혼자 유유자적하기를 추구하지 않는 넓은 도량을 열렬히 찬양하였다. 그러면서 歐陽脩를 천년에 한번 보기 드문 인재라고 칭송했다. 이 글에서 曾鞏은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삶에 대한 동경과 스승 歐陽脩에 대한 존경과 탄복의 마음을 내비쳤다.

> 대체로 公이 州의 빈객들과 노니는 경우에는 반드시 豐樂亭으로 나아가 술을 마시고 취하여 피곤할 때면 반드시 醒心亭으로 나아가 관망하니, 이때 못 산들은 빙 둘러 있고 구름 안개는 피어나고 너른 들판은 끝이 없고 초목은 무성하고 수석은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면, 눈이 보는 것에 새로워지고 귀가 듣는 것에 새로워진다. 그러면 그 마음이 씻은 듯이 깨어나 더욱 오래 있고 싶어져서 돌아가는 것을 잊어버린다. 그러므로 정자의 그와 같은 기능과 역할에 따라 이름을 지었는데 韓退之의 시 「北湖」에서 취한 것이다. 아. 산수 사이에서 제대로 즐거움을 누리고 있고 이름이 그 실재를 나타내는 것도 잘 되었다고 하겠다.[86] [87]

---

85) 永瑢・紀昀 著, 『文淵閣四庫全書』: “可以進則進, 可以止則止.” 第45卷, 上海古籍出版社, 2003年. P.763.

86) 宋基采 譯註, 『譯註唐宋八大家文抄 曾鞏』, 傳統文化研究會, 2011年. P.375.

87) 曾鞏 著, 『曾鞏集』(全二冊): “凡公與州之賓客者遊焉, 則必卽豐樂以飮. 或醉且勞矣, 則必卽醒心而望. 以見夫羣山之相環, 雲煙之相滋, 曠野之無窮, 草樹衆而泉石嘉, 使目新乎其所睹, 耳新乎其所聞, 則其心灑然而醒, 更欲久而忘歸也. 故卽其所以然而爲名, 取韓子退之「北湖」之詩云. 噫! 其可謂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曾鞏은 醒心亭의 환경과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기록된 경물을 세심하게 풀어내어 '醒心'이라는 단어를 드러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歐陽脩에 대한 醒心亭의 독특한 기능을 지적하였다. 이른바 "豐樂亭에서 술을 마시고(豐樂以飮)", "醒心亭에서 경치를 보는 것(醒心而望)"은 歐陽脩가 여러 친구들을 이끌고 나들이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 이에 醒心亭은 관광의 興이 나서 찾는 최종 유람의 목적지가 되었다. "조금만 마셔도 취한다.(飮少輒醉)"든지, "풍년의 즐거움(豐年之樂)"을 누리든지 遊興에 빠지든지, "혹은 취하여 고생하(或醉且勞)"든지 이곳은 오직 '마음을 깰 수 있는(醒心)' 장소였다. 그래서 曾鞏은 두 '必卽'을 연이어 사용하여, "豐樂亭에 꼭 가다.(必卽豐樂)", "醒心亭에 꼭 가다.(必卽醒心)"라고 표현하면서 醒心亭이 유람객들의 필수 방문지임을 설명하였다.

歐陽脩의 「醉翁亭記」와 「豐樂亭記」는 모두 두 정자의 이름을 정한 취지를 밝히고 있다. 전자는 "얼굴은 늙고 머리는 희끗희끗하다(蒼顔白髮)"와 "스스로를 醉翁이라고 부르다(自號曰醉翁)"라는 문장을 들어 정자의 이름이 "태수는 자신의 별호를 따서 명명했다(太守自稱)"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후자는 심산유곡에 깊이 숨겨져 있음과 동시에 "풍년을 편안하게 하는 즐거움(安此豐年之樂)"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豐樂으로 정자의 이름을 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曾鞏은 스승 歐陽脩의 취향을 따라 醒心亭을 기록할 때 새로운 뜻을 밝히며, '醒心而望' 네 글자를 여러 층차로 표현하여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가까운 것에서 먼 것으로 묘사했다. '望'이란 눈앞에 정자와 이웃의 풍경, 그리고 먼 곳의 산골짜기와 산봉오리들이다. '望'자 하나를 써서 "산들을 에워싸다(羣山相環)", "구름과 연기가 서로 피어오르다(雲煙相滋)", "광야가 끝없이 넓다(曠野無窮)" 등 滁州의 아름다운 경치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 하였다. 또한 '醒心'이라는 글자가 韓愈의 시에서 나온 것임을 밝혀 歐陽脩가 이름을 정함에 있어 근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글의 끝부분은 이 글의 화룡점정이라 할 수 있다. 曾鞏은 歐陽脩·韓愈와 같은 문단의 대가를 '醒心'과 연결해 두 사람의 品德과 文德을 칭송하고, 歐陽脩는

善取樂於山泉之間, 而名之以見其實, 又善者矣." 陳杏珍·晁繼周 點校, 中國古典文學基本從書, 中華書局, 1984年. P.276.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천년 만에 만나기 어려운 인재임을 개탄하였다. 또 歐陽脩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며 “오늘 함께 유람 오신 손님은 아직 歐公을 만나기 어려움을 알지 못한다(同遊之賓客，尙未知公之難遇)”고 하였다. 曾鞏은 歐陽脩가 좌천되더라도 산수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뜻과 함께 구양수가 느끼는 즐거움의 깊은 의미를 지적하여, 구양수의 재능과 덕성의 희귀함을 찬탄하고, 현재의 처지에 대해 억울함을 표현했다. 또한 曾鞏은 歐陽脩의 이런 생활 방식에 대해 동경하기도 하였다는 사실을 글에서 찾아볼 수 있다.

曾鞏은 「道山亭記」에서 자체의 구조나 외관에 대해서 거의 묘사하지 않고 閩 지역의 산천 형세, 수륙 교통 및 풍토 민심을 상세히 기술한 뒤 道山亭의 경관과 그 의미를 묘사하였다. 글의 서두에 道山亭이 있는 閩中郡의 역사적 유래와 지리적 특성을 묘사하면서 특히 육로와 수로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이곳의 고산이 험준하고, 개울이 급해 다니기가 어렵다는 것을 표현하는데 치중하였다. 이어 묘사된 공간은 侯官이라는 지역으로 더 좁혀서 이곳의 지리적 특성·풍속 등 자연경관과 인문경관을 중점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서술과 묘사는 매우 세련되고 대표성이 풍부해 道山亭의 건축에 있어 적합한 환경을 보여주고 있다.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道山亭을 건립한 구체적인 장소와 동기, 목적을 소개하고, 道山亭을 건립한 것을 여러 치적의 일부로 간주하여 관리가 정무 외에 눈과 귀의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는 합리성을 긍정하였다.

曾鞏의 道山亭은 매혹적인 경치를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福州 程師孟의 정치적 업적 및 道山亭의 건립을 중점적으로 칭송하기 위한 글이다. 또한 曾鞏은 程師孟과 같이 정치적 업적이 뛰어나고 놀이의 즐거움을 고려하는 정신적 추구를 반영하고 있다.

「齊州二堂記」는 齊州에 처음 지어진 두 곳의 ‘관리와 손님은 올 때 입주하는 館驛(使客之館)’을 “그 산천을 본떠서 이름을 지었다(考其山川而名之)”. 이른 바 ‘二堂’은 館驛이 樂水에 있는 남북을 달리하여 구분한다. 북쪽에 있는 당은 ‘歷山堂’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歷山이 樂水 남쪽에 있기 때문이다. 남쪽에 있는 당은 ‘濼源堂’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그 서남쪽에 있는 것은 濼水가 나오는 곳(其西南則濼水之所出)”[88]이 있기 때문이다. 趵突泉은 바로

88) 曾鞏 著, 『曾鞏集』(全二冊), 陳杏珍·晁繼周 點校, 中華書局, 1984年. P.308.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濼水의 발원지이다. 曾鞏은 趵突泉을 규명하고자 전적과 도서를 참조하였고, 지질 지리를 고찰하거나 몸소 체험하여, 현장 검증하였는데 결론을 뒷받침하고 확실히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趵突泉에 관해 曾鞏은 “齊州의 감천이 많다(齊多甘泉)”이라 칭송하였는데, “유명한 곳이 십여 개 있다(其顯名者以十數)”고 하였고, “모두 濼水의 곁가지에서 나온 것이다(皆濼水之旁出者也.)”[89] 라고 하였으며, 더 나아가 “색과 맛은 모두 같다(色味俱同)”고 하면서 “내가 검증해보았다(以予驗之)”라는 말로써 실제로 趵突泉을 품평하였다. 글에는 또한 찬탄의 의도가 많은데, 이는 曾鞏의 글에서 보기 드물게 감정이 직설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趵突泉에 대한 애정의 의미와 산수 유람의 취향을 알 수 있다.

3. 정치 주장

亭臺樓閣記의 정치적 주장은 曾鞏이 亭臺樓閣을 차용하여 사회・국가・백성의 통치와 연계해 자신의 견해와 정치적 주장, 건의를 표명한 글에 반영되었다. 이러한 글을 통해 曾鞏의 정치사상을 잘 이해할 수 있고, 曾鞏의 농후한 사회적 책임감과 천하를 품은 가족애를 느낄 수 있다.

1) 백성 교화

「撫州顔魯公祠堂記」, 「徐孺子祠堂記」, 「閬州張侯廟記」에서는 名士의 절조를 찬미하여 자신의 정치적 포부와 주장을 표현하였다. 曾鞏은 亭臺樓閣을 기록하여, 명사들의 절조를 찬양함으로써 백성에게 ‘敎化’의 효과를 기대함과 동시에 이들 명사들이 벼슬길을 추구한 일을 본받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撫州顔魯公祠堂記」는 曾鞏의 기문 중에서 비교적 긴 편으로 내용이 변화무쌍하고 격앙된 언사와 기세가 있다. 증공은 글에서 일찍이 잡기와 같은 문체의 특기를 발휘하였다. 서사・서정・의론을 융합하여 국가와 정의를 위하

89) 曾鞏 著, 『曾鞏集』(全二冊), 陳杏珍・晁繼周 點校, 中國古典文學基本從書, 中華書局, 1984年. P.308.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여 여러 차례 개인의 영욕을 무릅쓰고 간언하여 좌천되었으나 의지를 굽히지 않은 안진경의 사적을 중점적으로 묘사하였다. 또한, 역적에 맞서 나라를 지킨 공적을 서술하고, 顔眞卿의 품성과 절개를 찬미하여 유교의 大義를 논술하고, 顔眞卿을 기리는 사당 건립에 대한 찬사와 지지를 표명하였다.

> 그러한 시대를 살면서 한 번 時流를 거슬러 자신의 기반을 잃고도 스스로 후회하지 않을 사람은 적을 것이요. 두세 차례 時流를 거슬러 자신의 기반을 잃고도 스스로 후회하지 않을 사람은 아마도 아직까지 없었을 것이다. 만약 쓰러졌다가 일어나기를 일고여덟 차례가 되고 마침내 목숨을 잃고서도 스스로 후회하지 않을 사람은 천하에 한 명뿐이니. 公이 곧 그 사람이다.[90] [91]

曾鞏은 조정에서 벼슬한 사람은 세속을 한 번 거스를 수 있으나, 벼슬을 잃고도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드물다고 말했다. 두세 번, 연이어 세속을 거스르고 악에 대항하다가 벼슬을 잃고도 후회하지 않는 사람도 없을 것인데, 벼슬길에 올랐다가 떨어지기를 일고여덟 차례 반복하고도 죽을 때까지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천하에 오직 한 사람, 顔眞卿 밖에는 없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曾鞏이 顔眞卿의 절조를 매우 극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顔眞卿의 학문 글에 대해 논하여, 신선과 불교・도교의 문구가 종종 섞여 있어 완전히 진리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또 曾鞏이 顔眞卿의 능력만으로는 태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 그의 위대함을 보여주기에 부족하다. 간신과의 투쟁을 겪으며 끊임없이 고생하고 좌절을 극복하고 넘어지고 실의에 빠지기를 7, 8번 반복하며 개인의 생사화복을 처음부터 끝까지 고려하지 않는 것만이 그의 위대함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고 논했다. 顔眞卿이 道義에 충실하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여기서 曾鞏은 顔眞卿의 품성과 정신을 승화시켰는데, 이는 曾鞏이 이치에 통달하고 사례를 유교적 대의에 잘 녹여냈음을 보여준다.

---

90) 宋基采 譯註, 『譯註唐宋八大家文抄 曾鞏』, 傳統文化研究會, 2011年. P.350.

91) 曾鞏 著, 『曾鞏集』(全二冊): “能居其間, 一忤於世, 失所而不自悔者寡矣. 至於再三忤於世, 失所而不自悔者, 蓋未有也. 若至於起且仆, 以至於七八, 遂死而不自悔者, 則天下一人而已, 若公是也.” 陳杏珍・晁繼周 點校, 中國古典文學基本從書, 中華書局, 1984年. P.294.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曾鞏이 顔眞卿으로 악 세력에 맞선 殺身成仁의 용기는 스스로 격려했다. 曾鞏은 독자들이 顔眞卿에 대한 단순한 숭경 대신에 顔眞卿의 처세 태도와 벼슬길 입장을 배우도록 인도하는 것이 설득력과 교화 기능이 강하다고 생각했다. 당시 이미 극심한 '朋黨之爭'[92]을 겪었던 北宋 조정의 상황을 결합하면, 曾鞏은 顔眞卿이 간신에 저항한 것을 찬양한 것도 "옛 인물·사건을 평론한다는 명목을 빌어 현실을 풍자한다.(借古論今)"는 의도가 있다.

「徐孺子祠堂記」또한 借古論今의 글이다. 曾鞏은 徐稚가 여러 차례 벼슬길에 올랐지만 출사하지 않고 "자신의 절개와 수양을 유지한다(獨善其身)"는 지조를 칭찬하였는데, 그는 이를 통해 개인적인 은일에서 孔孟의 道를 미루어 생각했다. 전문을 읽으면 曾鞏의 "가난하면 자신만을 獨善하고 현달하면 천하를 兼濟한다"[93]는 유교의 인생 이상을 추구했음을 알 수 있다.

徐孺子祠堂은 曾鞏이 太守가 된 이듬해에 사료를 고증하여 徐稚의 옛 저택 터에 지은 곳이다. "내가 태수로 부임한 이듬해에 처음으로 그곳에 가서 띠풀을 엮어 사당을 짓고 孺子의 초상을 그리고는 中牢로 제사를 지내면서 洪州의 빈객들을 거느리고 가서 절을 올렸다.(予爲太守之明年, 始卽其處, 結茅爲堂, 圖孺子像, 祠以中牢, 率州之賓屬拜焉.)[94] "라고 했는데 전체 문장에서 이 부분만이 徐孺子祠堂을 묘사하고 있다

曾鞏은 글의 서두에서 한나라 때 환관이 집권한 "그 자루를 잃으면 기강이 크게 나빠진다.(失其操柄, 紀綱大壞)"는 시대적 배경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당시 조정에 있던 대신과 호걸들이 직언하다가 끝내 죄를 짓고 투옥된 경위를 기술하였다. 曾鞏은 이들 지식인의 굳건함과 후세에 대한 격려를 높이 평가하였으나 충성을 다했음에도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고 생각하였다. 방향을 바꾸어 徐稚가 벼슬을 받고도 출사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여기서 曾鞏은 『後漢書·徐稚傳』에서 "큰 나무가 쓰러지려 하는 것은 밧줄 하나만으로 원형을 유지할 수

92) 朋黨之爭은 封建士大夫가 권력과 이익을 다투기 위해 결합한 집단 간의 싸움을 가리킨다. 北宋時期에 비교적 심각한 朋黨之爭은 宋仁宗이 慶曆新政을 추진하여 관료지주의 이익을 침해하였기 때문이며, 점차 新政變法을 지지하는 革新派와 반대하는 保守派의 관료단체가 형성되었고, 그들은 각자 이익을 위해 투쟁했다. 즉 革新派와 保守派의 朋黨之爭이 형성되었다. 羅家祥 著,『朋黨之爭與北宋政治』, 華中師範大學出版, 2002年, 참조하다.

93) 周非 著, 『諸子百家大解讀』:"窮則獨善其身, 達則兼濟天下." 吉林教育出版社, 2011年, P.261.

94) 宋基采 譯註, 『譯註唐宋八大家文抄 曾鞏』, 傳統文化研究會, 2011年. P.343.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있는 것이 아닌데, 왜 한가하지 않은 곳에 머무르려 하는가?”[95]라고 기록하고 방증했다. 마지막으로 曾鞏은 孔子・孟子의 “나아갈 수 있으면 나아가고, 멈출 수 있으면 그친다.”[96]는 말로 유교의 처세술을 명확히 했다. 이것은 曾鞏이 추구하는 처세술이기도 한다.

「閬州張侯廟記」를 살펴보면 曾鞏은 張侯廟에 대해 기록했지만, 글의 80%가 의론과 논리로 채워져 있는데, 사물에 속아 넘어가는 이유를 먼저 제시하며 “일은 항상 그 지혜의 부족에 가려져 있고, 분별은 항상 지나치게 미혹된다.(事常蔽於其智之不周, 而辨常過於所惑.)”[97]고 했다. 또 聖人은 자연의 이치를 이용하여 사물의 진상을 잘 파악하고, 충분한 재능과 지혜로써 사물을 생각하고 분별하여 심오한 이치를 이해한다고 하였다. 曾鞏은 사물을 정확하게 인지하여, 고대에 이르러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이 “자신의 지혜를 다하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사람들의 지혜를 다하여 신의 의견을 들으니, 여기에서 하나도 폐할 수 있는 것은 없게 (盡己之智, 而聽於人, 盡人之智, 而聽於神, 未有能廢其一也.)”[98]해야 하였다고 말했다. 이는 성인의 도리야말로 신령의 지시라는 것을 옛것을 빌어 오늘날을 설명하고, 사물을 빌어 이치를 설명한 것이다. 아울러 세상 사람들에게 선현의 의견을 따르고 성인의 도리를 따라야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사물을 분별할 수 있으며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고 권고한 것이다. 이것으로 曾鞏이 유교의 도를 극진히 추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관리 권면

曾鞏의 亭臺樓閣記 중 「尹公亭記」, 「淸心亭記」, 「擬峴臺記」, 「廣德軍重脩鼓角樓記」, 「思政堂記」는 일부 역사적 名士의 치적을 칭송함으로써 자신의 통치 방식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고, 관리가 지녀야할 도리를 논술하며, 자신과

95) 郭預衡 著, 『唐宋八大家散文總集: 蘇洵・曾鞏』: “大木將顚, 非一繩所維, 何爲棲棲不皇寧處?” 第4卷, 河北人民出版社, 1995年. P.2917.
96) 郭預衡 著, 『唐宋八大家散文總集: 蘇洵・曾鞏』: “可以進則進, 可以止則止.” 第4卷, 河北人民出版社, 1995年. P.2917.
97) 曾鞏 著, 『曾鞏集』(全二冊), 陳杏珍・晁繼周 點校, 中國古典文學基本從書, 中華書局, 1984年. P.297.
98) 曾鞏 著, 『曾鞏集』(全二冊), 陳杏珍・晁繼周 點校, 中國古典文學基本從書, 中華書局, 1984年. P.297.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다른 관리들을 격려했다.

「尹公亭記」에서 尹洙는 隨州로 좌천되어 성의 동쪽 5리 밖에 있는 開元佛寺의 金燈院에 머무는데 전 지역의 문인들이 앞다퉈 찾아와 가르침을 청하였다. 尹洙는 좌천의 괴로움에 시달리지 않았는데, "그의 학문 경지는 富貴나 貧賤·死生 때문에 마음에 동요를 일으키지 않는 수준이다. 때문에 尹公이 隨州에 기거했을 때 날마다 서적을 열람하고 고금의 역사를 알아보는 것으로 일삼으며(不以貧富貴賤死生動其心, 故其居於隨, 日以考圖書·通古今爲事.)"[99] 처소의 북쪽에 정자를 짓고 오락을 즐기고 빈객과 회합했다. 尹洙가 隨州를 떠나자 隨州의 문인들은 그를 그리워하며 그의 지인을 맞이하던 띠로 지붕을 지은 정자를 '尹公亭'이라 불렀다. 이 글은 李公이 尹公亭을 증축한 후 尹公亭의 그림을 도성에 있던 曾鞏에게 보내며 청한 기문이다. 曾鞏은 증축된 尹公亭에 대해서는 별로 묘사하지 않고, 尹公亭의 옛 주인 尹洙가 隨州로 귀양 간 일을 많이 기술하였다. 이로 曾鞏이 尹洙에 대해 공감하고 칭송한 것을 알 수 있다.

曾鞏은 尹洙의 隨州에서의 귀양살이를 묘사했을 뿐만 아니라, 尹洙가 아무렇지도 않게 安貧樂道하여 학문을 견지하는 품성을 칭찬했다. 이에 曾鞏의 尹洙의 일을 자세하게 서술하게 된 심층적인 목적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尹洙는 曾鞏의 스승 歐陽脩의 절친한 친구로, 曾鞏은 그 사적과 재주를 알고 깊이 흠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배움의 모범으로 삼았다. 이는 曾鞏의 「學舍記」와 「南軒記」에 자신의 당시 상황을 묘사한 내용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둘째, 『宋史·尹洙傳』에 따르면 尹洙는 재직 중에 여러 차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언하였는데, "어린 나이에 형 尹源과 함께 儒學으로 이름을 날렸다."[100] 고, "그는 군사 대비의 중요성을 중시하여, 작전·수비의 성패의 요의를 논술하였는데, 이것들은 당시 매우 가치 있는 것이었으며"[101], "그는 박학다식하여, 예나 지금이나 통하지 않는 것이 없고, 특히 『春秋』에 뛰어나다."[102] 는 사실

99) 宋基采 譯註, 『譯註唐宋八大家文抄 曾鞏』, 傳統文化研究會, 2011年. P.355.
100) 元 脫脫 主編, 『宋史』, 列傳第五十四, 卷二百九十五:"少與兄源俱以儒學知名." 中華書局, 1977年. P.9837.
101) 元 脫脫 主編, 『宋史』, 列傳第五十四, 卷二百九十五:"其爲兵制之說, 述戰守勝敗, 盡當時利害." 中華書局, 1977年. P.9837.
102) 元 脫脫 主編, 『宋史』, 列傳第五十四, 卷二百九十五:"博學有識度, 尤深於『春秋』." 中華書局, 1977年. P.9837.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을 기록하였다. 曾鞏이 그를 극진히 추앙한 것은 尹洙가 유교의 대가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君子가 자신의 덕을 수양함에 있어서는 스스로 만족할 뿐, 따로 밖에서 바라는 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군자는 자신이 죽은 이후에도 그의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지 못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한 孔子의 말씀은 다른 사람과 그의 행동을 함께하기 위해서이다.(君子之於己, 自得而已矣, 非有待於外也. 然而曰疾沒世而名不稱焉者, 所以與人同其行也.)[103]”라고 한 것은 유교에 대한 추구이다. 자신에 대해 깨달은 바가 있고, 대외적으로 명성이 자자하며, 즉 “글으로 세상에 이름을 날려(文章名世)” 세상 사람들에게 학문의 귀감이 된 것은 曾鞏이 인생에서 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淸心亭記」는 曾鞏이 梅君의 淸心亭을 기록하는 것을 빌어 ‘淸心’이라는 두 글자를 발의하여 천하와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中庸의 道를 따라야 하며, 虛心自省・齋心自律・靜心養正・脩身治國의 經世致用을 주장하였다. 梅君이 정자를 건립한 것에 대해 曾鞏은 그 뜻이 통치에 있다고 추측하였다. 즉 정사를 다스릴 때 본심을 지키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글에서 曾鞏이 어떻게 이런 이치를 논술했는지 살펴보자.

> 대체로 사람이 그 덕을 신묘하고 밝게 수양하여 천지와 그 변화를 함께하는 것이 어찌 멀리 있겠는가. 마음에서 생기는 것일 뿐이다. 천하의 지식을 극대화하고 천하의 이치를 모두 궁구하여, 나에게 있는 천성을 잘 간직하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을 편안히 여긴다면, 밖으로부터 이르는 만물이 어찌 나에게 부담을 줄 수 있겠는가. 이것이 군자가 그 마음을 비우는 까닭이다. 만물이 이미 나에게 부담을 줄 수 없는 경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만물에 호응하여 백성과 길흉을 함께하는 것 또한 그만둘 수 없다. 그러므로 법과 경계를 제정하고 간사함과 편벽됨을 막는 일이 있게 되니 이것이 군자가 그 마음을 다스리는 까닭이다. 그 마음을 비우는 것은 정밀한 이치를 깊이 궁구하여 신묘한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요.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중용의 도를 따라 실용을 다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본다면 군자가 자기 자신을 수양하고 그 국가와 천하를 다스리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것이다.[104) 105)]

---

103) 宋基采 譯註, 『譯註唐宋八大家文抄 曾鞏』, 傳統文化研究會, 2011年. P.354.
104) 宋基采 譯註, 『譯註唐宋八大家文抄 曾鞏』, 傳統文化研究會, 2011年. P.373.
105) 曾鞏 著, 『曾鞏集』(全二冊): “夫人之所以神明其德, 與天地同其變化者, 夫豈遠哉? 生於心而已矣. 若夫極天下之知, 以窮天下之理, 於夫性之在我者, 能盡之, 命之在彼者, 能安之, 則萬物之自外至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曾鞏은 글에서 君子가 虛心을 이루려면 본성 가운데 仁을 발휘하고 외부 사물에 태연자약하게 직면해야 하며, 외적 사물의 변화에 따라 추세를 따라 할 수 있고, 민중과 함께 길흉에 직면해도 여전히 본성을 바꾸지 않을 수 있다고 각각 논술했다. 이와 동시에 법률 계명을 규범화하고 정도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君子는 또 齋心을 하고 자신을 엄격히 요구해야 한다. 虛心과 齋心을 결합하여 脩身爲政의 道를 달성하는 것이다.

「擬峴臺記」는 曾鞏이 39세 때 쓴 것이다. 그때 그는 蘇軾과 함께 進士에 급제하였고, 문채와 풍류로 더욱 이름을 날렸다. 이때 尙書司門員外郞이던 山西의 裴君이 撫州知州로 부임하여 '擬峴臺'를 지었는데, 曾鞏에게 기문을 부탁하였다. 曾鞏은 사양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또한 마음에도 없는 접대의 표현을 하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창건 전후의 경위와 撫州 산림의 특색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산천의 경치를 묘사하는 가운데 裴君이 황무지를 비우고 창건한 공적을 인정하여 裴君이 청렴하게 정치를 하도록 에둘러 격려하였는다. "정치를 하는데 청렴하고(爲政淸廉), 정치를 잘하며(善於治政), 백성과 함께 즐긴다(與民同樂)" 는 표현은 그가 스스로를 격려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思政堂記」도 曾鞏이 廳堂의 기문을 차용하여 정론을 제기한 글이다. 曾鞏은 당을 짓는 사람의 신분, 思政堂의 위치, 기능, 기록하는 연유를 밝혔다. 이어서 王君이 당을 짓게 된 경위, 당을 지은 후의 주변 모습, 그리고 王君이 당에서 '勤政'을 하는 모습을 서술한다. 王君의 근면함과 백성을 위한 정성을 칭찬하였다. 글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중 曾鞏이 서술하고자 하는 이치를 탐구한다.

>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고, 변덕스럽고 구속할 수 없는 것이며, 규칙이 없지만 변경할 수 없는 것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때그때의 변화를 알고 따라가다 필연적인 이치를 보고 따라가다 보면 일은 다하지 않아도 대처하기 쉽고, 미혹되더라도 다스리기 쉽다. 그러므로 만약 사람들의 뜻에 따라 주는 것이라면, 사람들은 편안해야 하며, 만약 사람들의 뜻에 반하는 것을 준다면, 사람들은 혐오

者, 安能累我哉? 此君子之所以虛其心也, 萬物不能累我矣. 而應乎萬物, 與民同其吉凶者, 亦未嘗廢也. 於是有法誡之設, 邪僻之防, 此君子之所以齋其心也. 虛其心者, 極乎精微, 所以入神也. 齋其心者, 由乎中庸, 所以致用也. 然則君子之欲脩其身, 治其國家天下者, 可知矣. 今梅君之爲是亭, 曰不敢以爲遊觀之美, 蓋所以推本爲治之意, 而且將淸心於此, 其所存者, 亦可謂能知其要矣. 乃爲之記, 而道予之所聞者焉." 陳杏珍・晁繼周 點校, 中國古典文學基本從書, 中華書局, 1984年. P.296.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생각에서 시작하지 않는 것은 없고, 그 후에 스스로 얻는 것이다. 자기가 얻은 것이 있으니 덕이라고 한다. 자신을 바르게 하고 백성을 다스리기 때문에 정이라고 한다.[106]

曾鞏은 이어서 세상 만물의 법칙이 무궁하고, 때가 변하였으나 멈추지 않으며 사물의 이치는 필연적이나 일정한 법칙이 없다고 논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때가 변함을 알고, 이치를 따라 변하지 않는 자만이 무궁하고 응변할 수 있으며, 미혹되더라고 다스리기 쉬울 수 있다는 이치를 추론해낸다. 만물은 변화무쌍하지만 사리는 항상 존재하며 나름대로 묘하다. 사람은 규칙을 파악하고 따를 수 있어야 현혹되지 않고 '법칙이 없다(無方)'는 것을 응변할 수 있다. 그래서 曾鞏은 "생각에서 시작하지 않는 것은 없고, 그 후에 스스로 얻는 것이다.(未有不始於思, 然後得於己.)"고 말했다.

현재 王君의 학문은 해박하여 읽지 않는 책이 없으며, 특히 『春秋』에 대해 깊이 연구하였다. 王君은 이 지역에 와서 평소의 학식을 발휘하여 주의 정사를 다스리고, 공적인 휴식도 얻을 수 있지만, 자신은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고 여기 깊이 생각했다.[107]

曾鞏은 王君이 "읽지 않는 책이 없으며, 특히 『春秋』에 대해 깊이 연구하였다.(書無所不讀, 尤深於『春秋』.)"고, "평소의 학식을 발휘하여 주의 정사를 다스리는(施用素學, 以脩其政.)" 학문을 실용화한 태도를 특별히 칭찬하였다. 또한, "쉬는 날에도 자신이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고 여기면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既得以休其暇日, 乃自以爲不足, 而思之於此.)"는 그의 행동에 감탄하였다. 이를 통해 曾鞏이 君子가 정치를 하려면 먼저 자신의 수양을 높이고 내적 이익

106) 曾鞏 著, 『曾鞏集』(全二冊): "夫接於人無窮, 而使人善惑者, 事也.推移無常, 而不可以拘者, 時也.其應無方而不可以易者, 理也. 知時之變而因之, 見必然之理而循之, 則事者雖無窮而易應也, 雖善惑而易治也. 故所與由之, 必人之所安也.所與違之, 必人之所厭也. 如此者, 未有不始於思, 然後得於己. 得於己, 故謂之德. 正己而治人, 故謂之政." 陳杏珍・晁繼周 點校, 中國古典文學基本從書, 中華書局, 1984年. P.288.

107) 曾鞏 著, 『曾鞏集』(全二冊): "今君之學, 於書無所不讀, 而尤深於『春秋』.....來爲是邦, 施用素學, 以脩其政, 既得以休其暇日, 乃自以爲不足, 而思之於此." 陳杏珍・晁繼周 點校, 中國古典文學基本從書, 中華書局, 1984年. P.289.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과 생각을 가진 다음 도덕을 축적해야 '자신을 바로 세우고 사람을 다스릴 수 있다.(正己而治人)' 는 사실을 주장했음을 알 수 있다.

「廣德軍重脩鼓角樓記」에서 曾鞏은 廣德에 軍을 세우지 않아 "도로가 구불거리고 험난하여 백성들이 불편하게 된지 오래되었다.(道路回阻, 衆不便利, 歷世久之.)"[108]며, 軍을 설립한 후엔 "큰 제후국의 체제처럼 조정에 국사를 아뢰고 정사를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였다.(奏事專決,體如大邦.)"[109]고 하였다. 이후 角樓가 "오래되어 누추해졌기(弊在簡陋)" 때문에 錢公輔가 풍년에 "재물을 모아 흙을 쌓고 새로이 고친다.(聚材積土, 將改而新之.)"고 기록하여, 朱壽昌이 뒤를 이어 다시 수리하는 데 성공하게 된 과정을 상세하게 묘사하였다.

曾鞏은 "무릇 예는 반드시 성대히 갖춰 그 규모를 줄여서는 안 되고, 정사는 반드시 그 치적을 드높여야지 도외시해서는 안 되는 법이다.(夫禮有必隆, 不得而殺.政有必擧, 不得而廢)"[110]라고 하였고, 위정자가 반드시 착실하게 일하여 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우환 의식

曾鞏은 亭臺樓閣記에서 역사 인물의 사적을 기록하고 칭송하여 백성을 교화하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 외에, 「飮歸亭記」, 「洪州新建縣廳壁記」에서 당시 사회, 국가에 대한 깊은 관심과 깊은 우환 의식을 표현했다.

「飮歸亭記」는 金溪縣의 縣尉 汪遘가 "사방의 벽을 확장하여 射亭를 지어 완성된 후에 그곳에서 선비들에게 활쏘기를 가르치(斥其四垣爲射亭. 旣成, 敎士於其間.)"는 일을 기록하였다. 曾鞏은 汪遘이 활터를 짓고 기술을 중시하였는데 射禮의 역사는 오래되었으나, 오늘날 "禮樂의 일은 다 무너지고, 射禮 또한 사라졌다.(禮樂之事相屬而盡壞, 揖讓之射滋亦熄.)"고 개탄하고, 射禮를 유지하는 것이 야말로 나라를 지킬 수 있기에 폐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曾鞏은 汪君이 전수하는 射藝는 옛날의 射禮와 달리 사격에 치중해 지금은 가

108) 宋基采 譯註, 『譯註唐宋八大家文抄 曾鞏』, 傳統文化研究會, 2011年. P.362.
109) 宋基采譯註,『譯註唐宋八大家文抄 曾鞏』, 傳統文化研究會,2011年. P.362.
110) 宋基采譯註, 『譯註唐宋八大家文抄 曾鞏, 傳統文化研究會, 2011年. P.364.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르침을 받는 사람도 옛날보다 적지만 장기적으로는 나라와 국가를 지키고, 적을 막아내거나 몰아낼 수 있다고 했다. 曾鞏은 汪君이 편안한 처지에 있을 때에도 위험할 때의 일을 미리 생각하고 경계한다고 칭찬했고, 비록 일개 문관일지라도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은 문무를 겸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구차하게 살아가고, 예의와 나라를 강건하게 하는 기술이 무너져도, 아무런 우환의식이 없음을 개탄했다.

이 글의 목적은 汪君이 옛 예절을 다시 회복하고 射藝를 강화하여 나라를 강건하게 함과 居安思危의 정신을 중시했음을 칭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정자들에게 “천하에 큰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작은 일도 함께 할 수 있으나, 작은 일도 처리하지 못하고도 큰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天下之事能大者固可以兼小, 未有小不治而能大.)” 고 권고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曾鞏이 국가의 안위와 사회 안정에 관해 관심을 두고, 나라를 굳건하게 하여 백성을 지키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백성과 국가를 다스림에 있어 작은 것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洪州新建縣廳壁記」에서 曾鞏이 글 말미에 기문을 기록한 이유는 黃公權이 縣을 다스리는 행위를 기록하여 그 공적을 찬양하고, 글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 縣을 다스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서술하기 위함이다. 이 글의 목적은 黃公權의 정치적 업적을 찬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정에 있는 관리들을 채찍질하고, 또 조정의 폐단을 깨우쳐 주기 위함이었다. 이 글은 비록 건물에 대해 서술하고 있지만 그 안에 주로 曾鞏의 정치사상을 표현하고 있다.

曾鞏은 글의 처음부터 특히 현령은 관리가 가지고 있던 관직 생활에 대한 포부를 거의 실현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曾鞏은 먼저 자신의 관점을 제시하고 질문을 한 다음 몇몇 縣令이 토로하는 통치의 어려움을 총결하였다. 첫째, 縣令은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혼자서 책임져야 하며, 각종 민사 분쟁은 완만하고도 급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판단의 통일된 기준이 없으면 결단이 어렵고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 둘째, 업무 외 의미있는 일을 하려면 상부에 지시를 요청해야 하고 그마저도 거부당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만일 사소한 일까지 확인하려는 상관을 만난다면 책임을 묻거나 방해가 심해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 縣令 스스로가 평안할 수 없다고 했는데, 어찌 통치를 잘 할 수 있을까?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 글을 썼을 때 벼슬길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으로 州와 縣의 각종 단점을 명확하게 볼 수 있어 나라를 다스리는 데 대한 관심을 알 수 있다. 글은 직설적이고 조금도 숨김이 없으며 관청의 문제점을 무자비하게 지적하여, “州는 자신의 강성함을 믿어 위엄을 갖는 반면, 縣에서는 자신의 약함을 걱정하여 죄를 면하려고만 한다. 이러한 습관이 이미 오래되었다.(州負其強以取威, 縣憂其弱以求免, 其習已久.)” 111)는 사실을 폭로하고, 상하급 관리 사이의 모순을 지적하며, 벼슬이 낮은 관리가 백성을 다스리려는 정치적 포부를 실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하였다. 이 글은 조정의 상관에게 직접 보낸 공문은 아니지만, 세상에 널리 알려진 글이다. 이 글에서 曾鞏의 정치 이상에 대한 주장 및 부조리에 대한 고발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이상 曾鞏의 亭臺閣閣記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曾鞏이 亭臺閣閣記에 기탁한 개인적인 사상을 알 수 있다.

첫째, 불교・도교에 대한 비판적 태도, 유교의 쇠락에 대한 반성, 유교의 부흥에 대한 책임감을 볼 수 있다.

둘째, 田園生活에 대한 동경과 安貧樂道의 은일 추구, 유교의 先賢의 정신을 따라 꾸준히 연구하는 자세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글로써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經世致用의 학식 추구를 함과 동시에 修身・齊家・治國・平天下하는 적극적인 入世의 인생을 추구를 볼 수 있다.

셋째, 역사적인 名士에 대한 존경・찬양・기념으로 그들에게 한 수 배우고자 하는 태도를 표현하여, 그들과 마찬가지로 愛民・護國・勤政・世俗에 관심을 나타냈다. 亭臺樓閣은 曾鞏에게 단순히 遊覽・紀念・懷古하는 문인들이 즐기는 장소가 아니라 曾鞏의 개인적인 사상과 추구를 담은 空間符號였음을 알 수 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는 정치적 주장과 벼슬길에 대한 추구를 알 수 있다.

111) 宋基采 譯註, 『譯註唐宋八大家文抄 曾鞏』, 傳統文化研究會, 2011年. P.324.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Ⅳ. 曾鞏 亭臺樓閣記의 서사 전략

北宋의 亭臺樓閣記는 唐代의 기초 위에서 매우 큰 발전과 혁신을 이루었다.

唐代의 亭臺樓閣記의 표현 주제는 '物'에 있어 서술의 중점이 건축물의 본체에 있다. 건축물의 건설 날짜, 원인, 과정, 그리고 건축물의 지리적 위치, 주변 경관 등을 서술하고 마지막에 약론한다. 그러나 北宋의 亭臺樓閣記의 표현 중점은 건축물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것에서부터 주관적인 의식으로 옮겨졌다. 건축물의 객관적인 사실을 기술하는 것에서 나아가 창작자의 주관적인 의식을 표현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작가의 의론과 견해 등을 서술한다. 그러므로 北宋 시대 亭臺樓閣記는 선명한 시대 예술 풍모를 갖게 되었으며 작문 구조, 표현 기법, 심미적 풍격에 있어 唐代와 다른 특징을 형성하였다. 계속해서 曾鞏의 亭臺樓閣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만의 독특한 서술 방식,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陰柔한 문풍

曾鞏의 亭臺樓閣記는 질박하기로 유명하며 화려한 수사 대신 정확한 표현을 추구한다. 曾鞏의 文風은 부드러운 '陰柔' 풍격에 속한다.

陰柔 문풍이 무엇인지, 曾鞏의 문풍이 왜 陰柔에 속하는지 살펴보자. 曹丕는 『典論・論文』에서 "글은 氣(색채, 풍격)를 위주로 하며, 氣의 淸과 濁에는 (淸과 濁을 구분짓게 하는) 나름의 문체가 있다."[112] 라고 말했다. 劉勰의 『文心雕龍・體性』에서는 "사람의 재능에는 평범함과 걸출함이 있고, 문장의 기질에는 강함과 부드러움이 있다."[113]고 했다. 또한 『文心雕龍・熔裁』에서는 "氣의 剛과 柔에 따라 體式을 확립하고, 시대에 맞게 문어를 변통한다."[114] 고 했다. 姚鼐의 『海愚詩鈔序』에서 '陽剛之美'[115]와 '陰柔之美'[116]의 관계에 대해

112) 張少康 著, 『中國文學理論批評簡史』: "文以氣爲主, 氣之淸濁有體." 中文大學出版社, 2004年, P.85.
113) 劉勰 著, 『文心雕龍註釋』(體性二十七): "然才有庸俊, 氣有剛柔." 周振甫 註, 人民文學出版社, 1981年, P.308.
114) 劉勰 著, 『文心雕龍註釋』(體性二十七): "剛柔以立本, 變通以趨時." 周振甫 註, 人民文學出版社, 1981年, P.355.
115) 陽剛之美는 "陽剛陰柔"라고도 하닌데 "陽剛"즉 陽剛之美이며, 웅장하고 강직한 예술 풍격을 가리킨다. 『典論・論文』에서는 "文以氣爲主, 氣之淸濁有體, 不可力強而致"고 말했는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논술하고 “만약 진실로 陽剛과 陰柔의 정교함에 대해 깨달았다면 모두 글의 아름다움을 이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117]고 말했다. 그리고 姚鼐의 분석에서 ‘陽剛之美’는 웅장함, 강건함, 경직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陰柔之美’는 온화하고 느리고 완곡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姚鼐가 『復魯絜非書』에서 “北宋 歐陽脩와 曾鞏의 글은 모두 陰柔之美에 편중되어 있다. 歐陽脩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취하여 흡수할 수 있었고, 曾鞏은 자신의 단점을 반복하는 실수를 하지 않았다.”[118] 고 말했고, 이어서 劉熙載가 韓愈・歐陽脩・曾鞏의 문풍의 차이를 “韓愈의 글은 강직하고, 歐陽脩・曾鞏의 글은 부드럽고 완곡하다...부드럽고 완곡한 것은 다시 涵養을 보는 것이다.”[119]과 같이 평했다. 이는 문장의 풍격이 작가의 성품, 도량, 수양, 감정 등의 특징으로 구성된 특수한 정신 상태가 글의 언어, 서술 수법, 풍격에 나타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曾鞏 문장의 陰柔 문풍은 어떤 방면에 구현됐는가? 주로 駢文과 散文의 결합 응용, 虛詞의 활용으로 그의 글은 자연스럽고 리듬과 음률 감각으로 가득 차 있다.

1) 駢文과 散文의 응용

曾鞏의 글은 駢文과 散文의 응용에 있어서 스승 歐陽脩의 글과 유사하며, 文辭는 법도에 맞고 멋스러우며 對仗을 잘하며 음률과 리듬감이 넘친다. 駢文은 고대 중국 특유의 고문체로서, 그 구식은 대부분 4자이나 6자와 對仗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四六文, 駢儷, 駢體라고도 한다. 散文은 駢文과 상대적인데 즉 詩, 詞, 曲, 賦 등 문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押韻, 對仗, 음악성, 리듬감을 중시하지

최초로 陰・陽의 氣로 문학 풍격을 서술하였다. 그 “淸氣”는 陰柔之氣이고,“濁氣”는 陽剛之氣이다. 朱立元 主編, 『美學大辭典』(脩訂本), 上海辭書出版社, 2014年, P.239.

116) 陰柔之美는 “陽剛陰柔”라고도 하는데 “陰柔”즉 陰柔之美이며, 완곡하고 그윽한 예술 풍격을 가리킨다. “陽剛陰柔”는 『周易・說卦』에서 “立天之道曰陰與陽, 立地之道曰柔與剛”고 유래했다. 朱立元 主編, 『美學大辭典』(脩訂本), 上海辭書出版社, 2014年, P.239.

117) 劉鳳泉 著, 『中國古代文論旨要』: “苟有得乎陰陽剛柔之精, 皆可以爲文章之美.”, 世界華語出版社, 2017年, P.216.

118) 張少康 著, 『中國文學理論批評簡史』: “宋朝歐陽・曾公之文, 其才皆偏於柔之美者也. 歐公能取異己者之長而時濟之, 曾公能避所短而不犯.” 中文大學出版社, 2004年, P.373.

119) 關永禮 著, 『唐宋八大家鑒賞辭典』: “昌黎文意寫來得硬直, 歐・曾來得柔婉.....柔婉正復見涵養也.” 北嶽文藝出版社, 1989年, P.524.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않는 것은 모두 散文이다. 散文의 언어는 아름답고 간결하며 문채가 풍부하고 경계가 심오하다. 작가의 생활 느낌을 표현하는 것을 중시하고 서정성이 강하며 감정이 진지하다. 아래에서 曾鞏 亭臺樓閣記의 駢文과 散文 응용의 예문이다.

편명	駢文 예문	散文 예문
醒心亭記	▪ 則必卽醒心而望, 以見夫群山相環. ▪ 吾君優遊而無爲於上, 吾民給足而無憾於下. ▪ 天下之學者, 皆爲才且良.	▪ 旣又直豐樂之東, 幾百步, 得山之高, 構亭曰醒心, 使鞏記之. ▪ 噫! 其可謂善取樂於山泉之間, 而名之以見其實, 又善者矣. ▪ 今同遊之賓客, 尙未知公之難遇也.
鵝湖院佛殿記	▪ 十萬不已, 必百萬也.百萬不已, 必千萬也.	▪ 自西方用兵, 天子宰相與士大夫勞於議謀...
學舍記	▪ 蛟魚洶湧湍石之川, 巔崖莽林貙虺之聚, 風波霧毒不測之危. ▪ 天傾地壞, 殊州獨哭. ▪ 予之勞心困形, 以役於事者, 有以爲之矣. 予之卑巷窮廬, 宂衣礱飯, 芑莧之羹, 隱約而安者.	▪ 十六七時, 窺六經之言, 與古今文章有過人者, 知好之, 則於是鋭意欲與之並. ▪ 得其閒時, 挾書以學, 於夫爲身治人, 世用之損益, 考觀講解, 有不能至者.
南軒記	▪ 得其時則行, 守深山長穀而不出者, 非也. 不得其時則止, 僕僕然求行其道者, 亦非也. ▪ 吾之不足於義, 或愛而譽之者, 過也. 吾之足於義, 或惡而毁之者, 亦過也.	▪ 少而思, 凡吾之拂性苦形而役於物者, 有以爲之矣. ▪ 賢人智者所稱事引類, 始終之槪以自廣, 養吾心以忠, 約守而恕者行之.
擬峴臺記	▪ 其外連山高陵, 野林荒墟, 遠近高下, 莊大閎廓, 怪奇可喜之觀. ▪ 君得之而喜, 增甓與土, 易其破缺, 去榛與草, 發其亢爽, 繚以橫檻, 覆以高甍, 因而爲臺, 以脫埃氛, 絕煩器, 出雲氣, 而臨風雨. ▪ 微風遠響, 與夫浪波洶湧, 破山拔木之奔放, 至於高桅勁櫓, 沙禽水獸, 下上而浮沉者, 皆出乎履舄之下!	▪ 然而雨隳潦毁, 蓋藏棄委於榛叢茀草之間, 未有卽而愛之者也. ▪ 則得於耳目, 與得之於心者, 雖所寓之樂有殊, 而亦各適其適也.
思政堂記	▪ 夫接於人無窮, 而使人善惑者, 事也.推移無常, 而不可以拘者, 時也.其應無方而不可以易者, 理也. ▪ 知時之變而因之, 見必然之理而循之, 則事者雖無窮而易應也, 雖善惑而易治也. ▪ 故所與由之, 必人之所安也.所與違之, 必人之所厭也.	▪ 君於是退處其中, 並心一意, 用其日夜之思者, 不敢忘其政, 則君之治民之意勤矣乎! ▪ 已化矣, 則亦豈止於政哉! ▪ 古君子之治! 未嘗有易此者也.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閬州張侯廟記	▪ 夫精神之極，其叩之無端，其測之甚難. ▪ 其智足以周於事，而其辨足以不惑，則理之微妙皆足以盡之也. ▪ 故古之有爲於天下者，盡己之智而聽於人，盡人之智而聽於神.	▪ 小人以爲神者， 以疾夫世之不盡在乎己者而聽於人， 不盡在乎人者而聽於神，其可也. ▪ 其歿也， 又能澤而賜之， 則其食於閬人不得而廢也，豈非宜哉?
淸心亭記	▪ 若夫極天下之知， 以窮天下之理，於夫性之在我者. ▪ 虛其心者，極乎精微，所以入神也.齋其心者，由乎中庸，所以致用也.	▪ 明年春又來請， 屬餘有悼亡之悲，又不果爲. ▪ 乃爲之記，而道予之所聞者焉.
尹公亭記	▪ 君子之於己，自得而已矣，非有待於外也. 然而曰疾沒世而名不稱焉者，所以與人同其行也. ▪ 人之於君子，潛心而已矣，非有待於外也. 然而有表其閭，名其鄕，欲其風聲氣烈暴於世之耳目而無窮者，所以與人同其好也.	▪ 公有行義文學， 長於辨論， 一時與之遊者， 皆世之聞人， 而人人自以爲不能及. ▪ 旣去而人不忍廢壞，輒理之，因名之曰尹公之亭.

*<표 4> 曾鞏 亭臺樓閣記의 駢文과 散文 응용 예문[120]

<표 4>는 曾鞏이 亭臺樓閣記에서 駢文과 散文을 응용한 예문들이다. 예문을 통해 曾鞏의 문장에서 駢文과 散文을 응용한 부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구문 측면에서 曾鞏은 항상 駢文과 散文 배치를 잘 사용한다. 그 亭臺樓閣記에서 駢文의 응용은 문장의 어조를 더욱 정연하고 화려하게 하며 觀賞性과 音律感을 풍부하게 한다. 또 독자의 낭독에 재미를 더할 수 있다. 그 亭臺樓閣記에서 散文의 응용은 문장의 어구를 더욱 친근하고 자연스럽게 하여 문장의 논리가 경직되지 않고 설득력이 있게 한다. 曾鞏은 기문에서 駢文과 散文을 잘 응용했으며, 그의 거의 모든 산문에서 이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曾鞏의 뛰어난 문장 창작 능력을 엿볼 수 있다. 曾鞏의 駢文과 散文을 응용에서 그가 단어와 문장을 잘 구사하고 韻腳, 對仗에 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그의 높은 문학 소양을 반영한다.

120) 예문 원문 참조: 曾鞏 著, 『曾鞏集』(全二冊), 陳杏珍・晁繼周 點校, 中國古典文學基本從書, 中華書局, 1984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虛詞의 활용

曾鞏 문장의 陰柔한 작법은 句式에서 虛詞의 대량 사용에 반영된다. 그의 문장 풍격은 작가의 의지와 정서가 녹아 있고 문장은 虛詞가 많다는 점에서 부드럽고 완곡하게 표현된다.

청대 劉淇는 『助字辨畧』에서는 "문장 구성의 道는 實字와 虛字의 양 끝 사이에 있으며 實字가 몸이라면 虛字는 감정이다."[121]라고 언급하였다. 劉淇는 實字가 글의 골격이고 虛詞의 증가나 감소는 작가의 작문 풍격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다고 했다. 작문에 있어 虛詞의 활용은 글에서 작가의 감정, 태도를 탐구하는데 더욱 도움이 되고 문장을 좀 더 감상적으로 하며 문학적 가치를 증가시킨다고 생각한다.

虛詞는 고문에서 독립적으로 구절을 만들거나 배열하는 방법의 성분이 되지 못하며 문법적 의미만 가지는 단어이다. 虛詞는 代詞・副詞・介詞・連詞・助詞・感歎詞・兼詞 등 7가지를 포함한다. 虛詞의 문법 작용은 매우 중요해 實詞와 함께 사용하면 특정 통사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虛詞의 문법 작용을 이해하는 것은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글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曾鞏 亭臺樓閣記 虛詞의 응용을 이해하는 것은 그 글의 뜻과 창작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중국 고문에서 자주 쓰이는 虛詞는 而・夫・乎・蓋・其・是・耶 (邪)・所・爲・焉・也・以・矣・哉・與・則・者・之 총 18개이다. [122]

아래 표 5-1부터 5-4까지 曾鞏의 亭臺樓閣記 24편에 사용된 虛詞의 활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

121) 劉淇 著, 『助字辨畧』(自序): "構文之道, 不過實字虛字兩端, 實字其體骨, 而虛字其性情也." 世界書局出版社, 1962年.

122) 고문에서 자주 쓰이는 虛詞 참조: 王力 主編, 『古代漢語常識』, 北京聯合出版公司, 1979年. P.33.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편명	而	夫	乎	蓋	其	是
兜率院記	13	2	1	1	17	2
仙都觀三門記	7	3	0	1	13	2
鵝湖院佛殿記	5	2	0	0	8	2
分寧縣雲峯院記	4	0	1	0	21	3
菜園院佛殿記	6	0	0	1	17	3
金山寺水陸堂記	13	5	0	4	5	1
江州景德寺新戒壇記	2	0	0	1	8	1
墨池記	6	1	1	1	10	0
厄臺記	6	1	6	0	2	2
學舍記	16	4	0	1	7	5
南軒記	14	1	1	0	10	3
醒心亭記	11	1	0	0	10	0
齊州二堂記	14	1	1	8	12	3
道山亭記	8	0	0	4	37	2
撫州顔魯公祠堂記	12	4	1	3	12	4
擬峴臺記	18	3	3	1	17	0
閬州張侯廟記	22	4	3	0	19	2
清心亭記	6	4	3	1	13	3
尹公亭記	19	1	2	2	21	6
徐孺子祠堂記	14	1	0	2	23	2
飮歸亭記	14	2	4	0	17	3
洪州新建縣廳壁記	14	0	1	0	26	1
思政堂記	15	1	3	0	17	2
廣德軍重脩鼓角樓記	8	1	0	1	3	9

*<표 5-1> 曾鞏 亭臺樓閣記의 虛詞 활용 통계[123]

편명	耶 (邪)	所	爲	焉	也	以
兜率院記	2	1	9	1	9	9
仙都觀三門記	1	4	3	2	7	4
鵝湖院佛殿記	1	0	2	1	6	2
分寧縣雲峯院記	0	3	3	0	8	5
菜園院佛殿記	0	5	6	1	7	16
金山寺水陸堂記	0	2	3	2	5	6
江州景德寺新戒壇記	0	3	5	0	1	2
墨池記	6	1	2	0	3	10
厄臺記	0	1	3	0	5	1
學舍記	0	12	7	0	11	13
南軒記	4	16	1	1	10	12
醒心亭記	0	4	4	1	6	6
齊州二堂記	0	5	7	1	14	7
道山亭記	0	2	10	0	6	9
撫州顔魯公祠堂記	0	8	11	1	11	18

123) 曾鞏의 亭臺樓閣記 원문 참조: 曾鞏 著, 『曾鞏集』(全二冊), 陳杏珍・晁繼周 點校, 中國古典文學基本從書, 中華書局, 1984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擬峴臺記	0	1	2	0	8	9
閬州張侯廟記	0	4	9	0	14	13
淸心亭記	0	10	9	1	5	9
尹公亭記	0	6	9	1	8	14
徐孺子祠堂記	0	6	11	2	7	12
飮歸亭記	1	5	2	0	7	15
洪州新建縣聽筆記	0	4	9	1	10	8
思政堂記	0	6	4	0	11	8
廣德軍重脩鼓角樓記	0	0	2	0	1	12

*<표 5-2> 曾鞏 亭臺樓閣記의 虛詞 활용 통계[124]

편명	矣	哉	與	則	者	之
兜率院記	0	0	1	0	13	17
仙都觀三門記	1	1	2	3	3	21
鵝湖院佛殿記	0	0	2	1	0	9
分寧縣雲峯院記	1	1	0	3	4	9
菜園院佛殿記	4	3	3	3	6	31
金山寺水陸堂記	1	3	2	2	10	38
江州景德寺新戒壇記	1	0	1	0	0	4
墨池記	0	2	0	2	6	18
厄臺記	0	1	0	6	2	27
學舍記	1	1	6	6	8	46
南軒記	1	1	5	4	15	36
醒心亭記	2	1	1	4	5	28
齊州二堂記	1	0	1	11	7	51
道山亭記	0	2	1	2	8	25
撫州顔魯公祠堂記	4	0	7	2	15	40
擬峴臺記	0	0	7	2	11	29
閬州張侯廟記	3	2	3	6	9	45
淸心亭記	4	2	2	2	10	26
尹公亭記	2	1	6	1	7	22
徐孺子祠堂記	1	0	3	7	7	13
飮歸亭記	2	2	4	7	7	33
洪州新建縣廳壁記	4	4	2	5	14	15
思政堂記	3	1	2	6	9	33
廣德軍重脩鼓角樓記	0	0	0	1	1	13

*<표 5-3> 曾鞏 亭臺樓閣記의 虛詞 활용 통계[125]

124) 曾鞏의 亭臺樓閣記 원문 참조: 曾鞏 著, 『曾鞏集』(全二冊), 陳杏珍・晁繼周 點校, 中國古典文學基本從書, 中華書局, 1984年.

125) 曾鞏의 亭臺樓閣記 원문 참조: 曾鞏 著, 『曾鞏集』(全二冊), 陳杏珍・晁繼周 點校, 中國古典文學基本從書, 中華書局, 1984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虛詞	합계(회)	의미	예문
而	267	◆ 連詞, '...하고도. 그리고.' 라는 뜻이다. ◆ 連詞, '...지만.' 이라는 뜻이다. ◆ 連詞, '...하면서 또. ...뿐만 아니라.' 라는 뜻이다.	◆ 二公於是兼而得之.「廣德軍重脩鼓角樓記」 ◆ 未有小不治而能大也. 「飮歸亭記」 ◆ 盡己之智而聽於人, 盡人之智而聽於神.「閬州張侯廟記」
夫	42	◆ 助詞,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이라는 뜻이다. ◆ 指示代詞, '이거, 저거' 라는 뜻이다. ◆ 語氣助詞, 감탄을 나타내는 말투다.	◆ 夫精神之極,其叩之無端.「閬州張侯廟記」 ◆ 與夫波浪洶湧, 破山拔木之奔放.「擬峴臺記」 ◆ 餘固嗟夫未嘗得與時之君子者遊.「金山寺水陸堂記」
乎	31	◆ 語氣詞, 의문을 나타내는 말투다. '嗎' 라는 뜻이다. ◆ 語氣詞, 반문을 나타내는 말투다. ◆ 語氣詞, 추측을 나타내는 말투다. '吧' 라는 뜻이다. ◆ 助詞, 멈춤을 나타내고, 의미가 없다. ◆ 介詞, '於' 라는 뜻이다.	◆ 以市於世, 其可乎?「撫州顔魯公祠堂記」 ◆ 則池之人,其不有蒙其澤者乎? 「思政堂記」 ◆ 則君之治民之意勤矣乎! 「思政堂記」 ◆ 謂其山谿之形, 擬乎峴山也. 「擬峴臺記」 ◆ 彼有接於物者, 存乎自然. 「閬州張侯廟記」
蓋	32	◆ 副詞, '대충' 이라는 뜻이다. ◆ 助詞, 추측성을 나타내는 판단이다. ◆ 連詞,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다.	◆ 蓋五十裏,而有泉湧出. 「齊州二堂記」 ◆ 而其所學,蓋不以貧富貴賤死生動其心.「思政堂記」 ◆ 則耕歷山蓋不同時,而地亦當異.「齊州二堂記」
其	345	◆ 代詞, '그의, 그녀의, 그들의' 라는 뜻이다. ◆ 代詞, '그' 라는 뜻이다. ◆ 代詞, '그 중의' 라는 뜻이다. ◆ 代詞, '그거, 이런 거' 라는 뜻이다. ◆ 語氣助詞, 추측을 나타내는 말투다.	◆ 漢旣失其操柄, 紀綱大壞. 「徐孺子祠堂記」 ◆ 故及其旣歿, 而漢亦以亡. 「徐孺子祠堂記」 ◆ 斥其四垣爲射亭.「飮歸亭記」 ◆ 至秦開其地列於中國. 「道山亭記」 ◆ 則凡同遊於此者,其可不喜且幸歟!「醒心亭記」
是	61	◆ 代詞, '이, 저' 라는 뜻이다. ◆ '於是', '이 자리에서, 이 시점에서' 라는 뜻이다. ◆ 판단의 뜻을 나타내며, '이, 저' 라는 뜻이다.	◆ 然是時, 方樂與家人童子嬉戲上下.「學舍記」 ◆ 知好之, 則於是銳意欲與之並.「學舍記」 ◆ 吾之道是也.「金山寺水陸堂記」
耶(邪)	15	◆ 語氣助詞, 의문이나 반문을 나타내는 말투다. '嗎' 라는 뜻이다. ◆ 語氣助詞, '呢' 라는 뜻이다.	◆ 抑識不可然且固存之耶?「兜率院記」 ◆ 豈其學不如彼邪?「墨池記」 ◆ 可當所謂益者之友非邪? 「南軒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所	109	◆ 結構助詞, 所＋動詞=名詞. ◆ 結構助詞, 所＋形容詞=動詞. ◆ 爲＋所, 피동적 인 뜻 을 나타내다.	◆ 凡所欲爲無不如誌.「江州景德寺新戒壇記」 ◆ 使目新科其所睹, 耳新科其所聞.「醒心亭記」 ◆ 此予之所皇皇而不足也.「學舍記」 ◆ 又爲禦史唐旻所構, 連輒斥.「撫州顔魯公祠堂記」
爲	133	◆ 介詞, ‘주다, 대신하다, 위하다, 왜냐하면’ 등의 뜻이 있다. ◆ ‘爲＋所’, 피동적 인 뜻 을 나타내며, ‘被’라는 뜻이다. ◆ 語氣助詞, ‘何＋爲. 豈＋爲’로 반문을 나타내는 말투다.	◆ 亦將同其樂也, 故予爲之記.「擬峴臺記」 ◆ 又爲禦史唐旻所構, 連輒斥.「撫州顔魯公祠堂記」 ◆ 豈以一身爲貴乎?「厄臺記」
焉	16	◆ 介詞, ‘於是’라는 뜻이 있다. ◆ 의미 없이 斷句만 쓴다. ◆ 副詞, ‘怎麼. 哪裏’라는 뜻이 있어 반문을 나타내는 말투다.	◆ 夫餘心之所樂焉.「金山寺水陸堂記」 ◆ 求屋室居人焉,無有也. 「菜園院佛殿記」 ◆ 而諗其終何如焉?「兜率院記」
也	180	◆ 語氣助詞, 판단 어조를 나타내다. ◆ 의문과 원인을 설명하는 데 쓰인다. ◆ 다음 분문을 일으키는 데 사용한다.	◆ 夫子絕糧之所也. 「厄臺記」 ◆ 不懈如初,而其強力蓋有餘也.「江州景德寺新戒壇記」 ◆ 公東也, 一山之隅, 一泉之旁, 豈公樂哉? 「醒心亭記」
以	220	◆ 介詞,‘拿, 用’라는 뜻이 있다. ◆ 介詞, ‘위하다. 왜냐하면. 때문에’라는 뜻이 있다. ◆ 連詞, 목적을 나타내고, ‘來, 以便’라는 뜻이 있다. ◆ 連詞, 同‘而’, ‘而且’라는 뜻이 있다.	◆ 而鞏也,又得以文詞託名於公文之次.「醒心亭記」 ◆ 予不知其何以然也!「鵝湖院佛殿記」 ◆ 豈獨其說足以動人哉? 「菜園院佛殿記」 ◆ 方羲之之不可強以仕. 「墨池記」
矣	36	◆ 語氣助詞, 문장의 끝에 써 ‘了, 啦’라는 뜻이 있다.	◆ 能居其間, 一忤於世, 失所而不自悔者寡矣. 「撫州顔魯公祠堂記」 ◆ 爲後世之吏, 得行其志者, 少矣.「洪州新建縣廳壁記」
哉	28	◆ 語氣助詞, 문장의 끝에 써 감탄을 표현하다. ‘啊’라는 뜻이 있다. ◆ 疑問詞＋哉, 반문을 표시하기도 하고 감탄하는 말투도 있다.	◆ 其志壯哉!「道山亭記」 ◆ 而縣爲最甚. 何哉? 「洪州新建縣廳壁記」
與	61	◆ 連詞, ‘和’같은 뜻이 있다. ◆ 介詞, ‘同’같은 뜻이 있다. ◆ 語氣助詞, 문장 끝에 써 ‘嗎, 呢’라는 뜻이 있다.	◆ 鍾樓與戒壇, 總爲屋若幹區.「江州景德寺新戒壇記」 ◆ 慶曆三年九月, 與其徒謀曰. 「分寧縣雲峯院記」 ◆ 顧乃習鬥而喜勝,其是與? 「飮歸亭記」
則	86	◆ 連詞, 두 가지 일의 선후 계승	◆ 羲之之書晩乃善, 則其所能. 「墨池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관계를 나타낸다. ‘就’라는 뜻이 있다. ◆ 가끔은 ‘那麼. 那麼...就’의 뜻이 있다.	記」 ◆ 則天下之東馳而莫不顧慕者. 「金山寺水陸堂記」
者	177	◆ 結構助詞, 동사나 형용사 뒤에 쓰이고 명사적 구조를 이루며 ‘的’를 뜻이다. ◆ 앞의 글자와 하나의 명사를 이루기도 한다. ◆ 語氣助詞, 문장 끝으로써 ‘似的’라는 뜻이 있다. ◆ 쉼표 앞에 쓰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내용을 나타낸다.	◆ 考觀講解,有不能至者. 「學舍記」 ◆ 凡吾之拂性苦形而役於物者,有以爲之矣.「南軒記」 ◆ 此吾之所任乎天與人者. 「南軒記」 ◆ 然而天下之事能大者固可以兼小. 「飮歸亭記」
之	629	◆ 代詞, 동사 뒤에만 사용할 수 있는데 ‘他, 她, 它, 他們, 她們, 它們’이라는 뜻이다. ◆ 結構組詞, ‘的’와 동격자. ◆ 명사로 나타내는 긴 문장 구조를 연결하다.	◆ 知時之變而因之,見必然之理而循之, 則事者雖無窮而易應也,雖善惑而易治也. 「思政堂記」 ◆ 至今雖小夫婦人,皆知公之爲烈也. 「撫州顔魯公祠堂記」

*<표 6> 曾鞏 亭臺樓閣記의 虛詞 활용의 의미 및 예문[126)]

위의 표5-1~5-4를 통해 曾鞏 亭臺樓閣記에 고대 漢語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虛詞의 사용량을 분석했다. 18개의 虛詞가 曾鞏의 亭臺樓閣記에 사용된 횟수는 ‘之’(629회), ‘其’(345회), ‘而’(267회), ‘以’(220회), ‘也’(180회), ‘者’(177회), ‘爲’(133회), ‘所’(109회), ‘則’(86회), ‘是’(61회), ‘與’(61회), ‘夫’(42회), ‘矣’(36회), ‘蓋’(32회), ‘乎’(31회), ‘哉’(28회), ‘焉’(16회), ‘耶/邪’(15회)이다. 이는 曾鞏의 亭臺樓閣記에 虛詞가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는 특징을 잘 보여준다.

曾鞏은 대량의 虛詞를 사용하여 구와 구를 하나로 연결해 議論이 일사천리가 되게 하는 효과를 보였다. 나아가 문장을 더욱더 논리적이고 낭독성 있게 만들었다. 그중 많은 수의 虛詞가 어기 조사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는 문장을 더욱 친근하고 평이하며 자연스럽게 만들어 저자와 독자 사이의 거리를 좁히게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虛詞는 일련의 의문이나 반문을 유발하여 독자들의 관심과 깊은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이론과 논리에 근거한 이치를 백성에게 광범위하게 알

126) 曾鞏의 亭臺樓閣記 원문 참조: 曾鞏 著, 『曾鞏集』(全二冊), 陳杏珍・晁繼周 點校, 中國古典文學基本從書, 中華書局, 1984年.
虛詞의 의미 참조: 王力 主編, 『古代漢語常識』, 北京聯合出版公司, 1979年. P.34-49.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려준다는 목적을 달성한다. 그리고 이런 어기 조사의 사용은 글의 감정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독자들이 작가의 감정을 더욱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墨池記」에서, 曾鞏은 여러 개의 '...邪?'로 질문을 하였다. 曾鞏은 층층이 질문하고, 차근차근 유도하여 서술한 이치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게 했다.

또 「南軒記」에서는 "하물며 권세와 이득, 사랑과 증오, 비난과 칭찬의 사이에서 다투게 할 수 있겠는가.(況使之爭於勢利・愛惡・毁譽之間邪?)[127] [128]", "어찌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其能無燄然於心邪?)[129] [130]", "어찌 반드시 이곳에서 쉬고만 있겠는가.(獨何必休於是邪?)[131] [132]", "이른바 '유익한 벗'에 해당되지 않겠는가.(可當所謂益者之友非邪?)[133] [134]", "저들이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彼何與於我哉?)[135] [136]"라고 썼다. 曾鞏은 일련의 의문문을 사용하여 긍정적인 의미를 표현하고, 글의 뜻을 강조하여 문사를 완곡하고 깊이 있게 만들고, 독자의 공감을 더 잘 끌어냈다.

위와 같은 많은 虛詞 활용은 曾鞏의 문풍에 영향을 미쳤다. 그의 문장을 함축적이고 완곡한 陰柔 풍격의 특징을 갖게 한 것이다. 曾鞏의 駢文과 散文, 虛詞의 사용에 뛰어난 것은 歐陽脩의 一唱三歎[137]을 작문 풍격을 일부 계승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曾鞏이 '文質少華'[138]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글쓰기의 목적에서 '화려한 말이나 수식을 줄이고 이치를 중시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127) 宋基采譯註, 『譯註唐宋八大家文抄 曾鞏』, 傳統文化研究會, 2011年. P.388.
128) 曾鞏 著, 『曾鞏集』(全二冊), 陳杏珍・晁繼周 點校, 中國古典文學基本從書, 中華書局, 1984年. P.285.
129) 宋基采譯註, 『譯註唐宋八大家文抄 曾鞏』, 傳統文化研究會, 2011年. P.388.
130) 曾鞏 著, 『曾鞏集』(全二冊), 陳杏珍・晁繼周 點校, 中國古典文學基本從書, 中華書局, 1984年. P.285.
131) 宋基采譯註, 『譯註唐宋八大家文抄 曾鞏』, 傳統文化研究會, 2011年. P.389.
132) 曾鞏 著, 『曾鞏集』(全二冊), 陳杏珍・晁繼周 點校, 中國古典文學基本從書, 中華書局, 1984年. P.285.
133) 宋基采譯註, 『譯註唐宋八大家文抄 曾鞏』, 傳統文化研究會, 2011年. P.389.
134) 曾鞏 著, 『曾鞏集』(全二冊), 陳杏珍・晁繼周 點校, 中國古典文學基本從書, 中華書局, 1984年. P.286.
135) 宋基采譯註, 『譯註唐宋八大家文抄 曾鞏』, 傳統文化研究會, 2011年. P.390.
136) 曾鞏 著, 『曾鞏集』(全二冊), 陳杏珍・晁繼周 點校, 中國古典文學基本從書, 中華書局, 1984年. P.286.
137) 一唱三歎은 한 사람이 앞장서서 부르고 세 사람이 맞장구를 친다는 뜻으로, 원래는 음악과 노래가 단순하고 질박하다는 뜻이다. 지금은 문풍이 완곡하고 의미가 깊다는 뜻으로 쓰인다. 『荀子・禮論』에서 나왔다.
138) 文質少華는 문장의 언어 풍격이 질박하고 꾸밈이 적은 것을 가리킨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曾鞏 문장의 기교를 이해하는 것은 曾鞏의 작품 이해에 도움이 된다.

2. 엄밀한 佈局

曾鞏의 亭臺樓閣記의 두드러진 점으로 글의 구성이 치밀하고 단계가 명확한 것을 들 수 있다. 曾鞏의 亭臺樓閣記의 寫景, 敍事, 議論, 抒懷는 모두 짜임새 있고 자연스럽다. 글의 구조는 渾然天成[139]하여 주도면밀하게 묘사, 토론, 서정의 목적을 달성한다. 邵伯溫은 "그는 글을 매우 재빠르게 쓰는데, 처음에는 기대하지 않았다가도 글을 완성한 후 보는 사람들이 모두 그것의 정묘함에 감탄한다."[140]라고 말한 것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曾鞏은 亭臺樓閣記에서 "먼저 건물 본체를 묘사하거나 건축 과정을 기록하고, 그다음 감정을 읊거나 의론한다."는 고정된 구도를 벗어났으나 작문 구도가 변화무쌍하고, 글의 주제 의식이 강했다. 주로 의론, 논리에 능했으며, 객관적인 묘사는 극히 적거나 심지어는 없는 경우도 있다. 沈德潛은 曾鞏의 亭臺樓閣記에 대해 "글쓴 의도를 글 속에서 찾아야 하는지 글 밖에서 찾아야 하는지 사람을 아리송하게 하면서도 생각하는 맛이 있게 한다."라고 말했다.[141]

1) 문장 배치의 적절성

曾鞏의 글은 엄밀한 배치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서술의 상세함과 간략함을 결합한 묘사 방법에 반영된다. 상세함과 간략함이 적절하고,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글을 더욱 생동감 있고 설득력 있게 한다.

「撫州魯公祠堂記」에서는 曾鞏은 顔眞卿의 '捍賊', '忤奸' 두 가지 사적을

---

139) 渾然天成은 詩·文의 구성이 치밀하고 자연스러우며, 文辭와 典故를 쓸 때 다듬은 흔적이 전혀 없다는 뜻이다. 또한 사람의 才德이 완벽하고 자연스럽다고 묘사한다. 韓愈의『上襄陽於相公書』"閣下負超卓之奇才, 蓄雄剛之俊德, 渾然天成, 無有畔岸."에서 나왔다.

140) 邵伯溫 著, 『邵氏聞見錄』卷十:"其屬文動筆如飛, 初若不措意, 文成觀者皆服其精妙." 中華書局, 1983年. P.116.

141) 呂晴飛, 朱寶彤 編, 『唐宋八大家散文鑑賞辭典』:"用意或在題中, 或出題外, 令人徘徊賞之." 中國婦女出版社, 1991年. P.935.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중점적으로 선정하여 묘사하였다. 문장 적절성 배치에서는 결말에 글을 지은 이유를 한마디로 약술하여, ‘忤奸’는 사적을 상세히 써 顔眞卿의 不屈不撓의 영웅적 모습이 돋보인다. 따라서 유교 先賢에게는 殺身成仁의 굳건한 정신이 있다고 논술한다. 또한 聶厚載・林愷는 顔眞卿을 기리기 위한 祠堂 건립 움직임도 찬양하였다.

「尹公亭記」에서 曾鞏은 정자의 개황을 묘사하지 않았다. 대신에 먼저 “안으로는 자신에게 만족할 수 있고, 밖으로는 좋아하는 마음을 다른 사람과 함께 느끼는(內有以得諸己, 外有以與人同好.)”[142] 先王의 道를 간략하게 논술했다. 그리고 尹洙가 좌천당하면서도 현실에 구애받지 않고, 自我를 추구하고, 학문에 충실했다는 점을 자세히 묘사한다. 이를 통해 曾鞏은 尹洙를 자신을 엄하게 다스리는 군자로 찬양하고, 李禹卿은 尹洙를 기념하기 위해서 정자를 세우는 것을 李禹卿을 ‘世人의 취향이나 우러름을 자신과 같게 하다(與人同好)’의 군자로 칭송도 했다.

「分寧縣雲峯院記」에서 曾鞏은 分寧縣 사람들의 ‘勤生’・‘嗇施’・‘薄義’・‘喜爭’의 풍습을 자세히 묘사했다. 그런 다음 스님 道常의 ‘樂施’・‘淡泊’의 성품을 간략하게 기술했다. 이 글의 내용이 상세하고 간략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分寧縣 사람들의 성품과 道常의 성품을 극명하게 대비하고, 양자를 비판하거나 칭찬하는 曾鞏의 태도를 강조한다.

또 다른 예로 「南軒記」는 南軒 서재의 위치・기능・중요성을 한두 마디로 간략하게 기술한 바 있다. 나머지 부분들은 曾鞏 자신의 개성・인생 포부・흥미 추구, 자신이 폭넓게 섭렵한 책, 그리고 이를 배우는 목적을 차례로 상세히 서술했다. 茅坤의 말처럼 “子固 특유의 학식은 구체적으로 이 글에서 볼 수 있다.”[143]고 할 수 있다.

문장 배치가 적절해야 주요 인물과 사건을 부각시켜 문장의 주제를 선명하게 할 수 있다. 曾鞏의 亭臺樓閣記를 살펴보면서 曾鞏이 고도의 창작 기술, 특히 글의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 그에 걸맞는 문장 및 묘사 방법을 채택한 것을 알 수 있다.

---

142) 宋基采 譯註, 『譯註唐宋八大家文抄 曾鞏』, 傳統文化研究會, 2011年. P.354.
143) 明 茅坤編, 『唐宋八大家文鈔』卷105: “ 子固所自學, 具見篇中矣.” 中華書局, 1997年. P.159.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정확한 언어 표현

曾鞏의 亭臺樓閣記에 나타내는 主體意識이 강하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작품의 표현 형식은 주로 토론을 서술로 보완하는 '夾議夾敍'[144] 형식이다.

朱熹의 『朱子語類』에 "曾鞏의 글은 오히려 비교적 질박하다...선정한 단어는 이치에 입각하여 하는 것이지, 허황되지 않다. 그러나 蘇軾에 비하면 소박하고 합리적이다."[145]고, "그의 문사가 엄하고 이치가 적절하다고 좋아한다."[146] 劉熙載는 『藝概』에서 "曾鞏의 글은 사리를 다했는데, 그 맛이 우아하고 깊다. 현자의 넓은 마음을 만나고 싶게 한다."[147]고 말했는데 曾鞏의 글은 이치에 밝음을 알 수 있다

亭臺樓閣을 제목으로 한 기문은 원래 비교적 작은 제재이기 때문에 제재를 논하며 창작하면 깊은 의미와 취지를 갖기 어렵다. 曾鞏의 창작은 제재에 국한되지 않고 깊은 뜻에서 글을 쓰는 데 능숙하며,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보고, 주제를 빌려서 발휘하고, 사리를 다하는 데 능숙하다.

曾鞏의 亭臺樓閣記는 평범한 서술과 의론으로 심오하고 원대한 이치를 표현하는 데 능숙하다. 그의 서술은 비교적 솔직하고, 의론과 서정도 비교적 완만하며, 감정이 격한 서정은 거의 없고, 격앙된 의론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鋒芒을 잡고 소박하게 이치를 서술한다. 曾鞏은 「上歐陽學士第一書」에서 "析辨詭詞는 두 말을 나란히 탄 차가 길을 막는 것과 같다.(析辨詭詞, 驪駕塞路.)"[148]면 聖人의 道는 만나기 어렵고, "문장의 수식이 번잡하고 과장된다.(飾藻繢以誇詡.)"[149]면 聖人의 道는 알기 어렵다. 曾鞏은 "聖人의 道가 孟子・荀子・楊雄・韓愈 四君子

---

144) 夾議夾敍는 어떤 일을 서술하면서 그 일을 분석하고 논의하여 쓴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인식, 태도 및 평가를 나타내는 일종의 글쓰기 방법이다. 그의 표현 형식은 先議後敍・先敍後議・邊敍邊議이다.

145) 朱熹 著, 『朱子語類』: "南豐文卻進質...文字傍道理做, 不爲空言. 但比之東坡, 則較質而進理." 中華書局, 1986年. P.3301.

146) 曾棗莊 主編, 『中國文學家大辭典・宋代卷』, 第3卷: "愛其詞嚴而理正." 中華書局, 2004年. P.917.

147) 淸・劉熙載, 『藝概』 卷一, 「文概」: "曾文盡事理, 其氣味爾雅深厚, 令人想見'碩人之寬'." 上海古籍出版社, 1978年. P.31.

148) 曾鞏 著, 『曾鞏集』(全二冊), 陳杏珍・晁繼周 點校, 中國古典文學基本從書, 中華書局, 1984年. P.231.

149) 曾鞏 著, 『曾鞏集』(全二冊), 陳杏珍・晁繼周 點校, 中國古典文學基本從書, 中華書局, 1984年. P.231.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의 글에서 가장 잘 보인다.(觀聖人之道者, 宜莫如於孟荀楊韓四君子之書.)" [150]고 말했다. 曾鞏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들의 글이 모두 소박하고 꾸밈이 없기 때문이다. 글의 창작함에 있어 예술적 미학을 지나치게 추구해서는 안 되며 그렇지 않으면 서술의 이치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曾鞏이 공고히 한 문학적 소양과 노련한 창작 기교를 알 수 있다.

「厄臺記」의 전문은 300자에 불과하며 그 구조가 간결하고 문사가 간결하며 典故로 도리를 설명하고 글에는 思辨色彩[151]가 가득하다. 글은 '厄臺'의 厄으로 의론을 제기하여, 孔子가 액운을 당해도 자기 수양을 견지하는 정신을 견지한다고 찬양하다. 聖人들이 고난을 겪으며 대업을 이룬다는 이치를 설명하고, 세상 사람들이 聖人들에게 배워서 역경에 처해도 자신의 지향과 정조를 견지할 것을 권한다. 글은 소박하고 직접적이며 간결한 언어로 曾鞏의 孔孟之道에 대한 존숭과 믿음을 표현하였다.

「鵝湖院佛殿記」도 전문은 극히 짧아서 250자로 군말이 하나도 없다. 曾鞏은 明比와 暗寓의 수사법을 교묘하게 적용하여, 불도가 지나치게 사치스럽게 절을 짓는 것은 나라를 망치고 백성을 누추하게 하는 행위라고 간결하고 명료하게 설명했다.

「墨池記」는 王羲之의 墨池 유적을 제목으로 하여, 王羲之의 서예 성취는 "자신은 스스로 노력하게 연습하여 달성한다.(以精力自致)"는 것이 "타고난 성취가 아니다(非天成)"는 이치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 글은 삼백 자 정도이며, 그 문장 배치는 고상하고 평정하며 완만하여 서두르지 않는다. 전편에 그 사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사리를 분명하게 밝혀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우고 있다. 曾鞏의 산문은 근엄하고 소박하며 자연스럽고 유려한 풍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擬峴臺記」의 경우 擬峴臺에서 바라본 경치를 묘사하고 있는데, 시냇물이 굽이굽이 흘러 멀리 흘러가고, 수면의 파도가 세차게 일면 그 힘은 산을 뚫고 나무

150) 曾鞏 著, 『曾鞏集』(全二冊), 陳杏珍・晁繼周 點校, 中國古典文學基本從書, 中華書局, 1984年. P.231.

151) 思辨色彩는 원래 변증법적 思維를 가리키는데, 일을 대할 때 둘로 나누어 一正一反의 각도로 문제를 전면적으로 분석하고 思考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즉 議論文에서 立意, 構思 등 방면에 변증법적 思維의 의론을 융합시켰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를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배와 짐승이 파도에 출렁이며, 푸른 산줄기가 하늘과 같이 높이 솟아 있고, 드넓은 평야에서 동물의 움직임과 촌락의 행인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백여 자 묘사 가운데 曾鞏은 擬峴臺의 山水勝景을 하나둘씩 늘어놓았는데, 글이 간결하고 깔끔하며 이미지가 풍부하다.

「淸心亭記」는 曾鞏이 '淸心'이라는 두 글자를 써서 관리가 다스려야 할 마음을 맑게 해야 한다는 도리를 설파하고, 군자는 마음을 맑게 하고 스스로 수양한 후에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논리로 확장하였다. 또한 梅君이 정자를 세운 것은 단지 유람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勤政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과도 부합한다. 간단한 글자임에도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으니, 曾鞏은 문자의 파악과 사용에 뛰어난 조예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學舍記」에서 曾鞏이 "집안의 일이 빈번히 생겨났다.(家事滋出)"는 네 글자로 당시 그의 상황을 대번하고, 또 아래 문장을 일으키는 작용을 하여, 曾鞏은 먹고살기 위해 사방으로 뛰어다니는 자신의 노고와 농사·집안일, 자질구레한 일까지 모두 감당해야 하는 艱辛가 서술의 기조를 다졌다.

曾鞏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타향에서 홀로 통곡하다.(天傾地壞, 殊州獨哭.)"[152]는 것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신의 끝없는 슬픔을 표현했고, 당시 타향에 홀로 있어 의지할 곳이 없는 무력함도 적었다. 여기서 간단해 보이는 몇 글자, 과장된 비유 수법으로 그의 깊은 애통함을 담았으며, 曾鞏의 亭臺樓閣記에서 보기 드문 강렬한 감정이 새어 나온 것이다.

「醒心亭記」를 다시 보면 醉翁亭·豐樂亭·醒心亭은 모두 歐陽脩가 滁州로 좌천되었을 때 유람을 위해 지은 정자들이다. 앞의 두 정자인 歐陽脩는 스스로 기문을 썼고, 醒心亭은 歐陽脩가 "나에게 기문을 짓게 하였다(使鞏記之)"는 것이 歐陽脩 자신은 醒心亭을 위해 기문을 지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使'라는 한 글자는 曾鞏의 스승 歐陽脩가 曾鞏에 대해 認可·賞識·提拔을 잘 표현한다.

「鵝湖院佛殿記」에서는 "나에게 기문을 지어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紹元이었다. 그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쓴 것이다.(而請予文者又紹元也, 故云耳.)"[153]라

152) 曾鞏 著, 『曾鞏集』(全二冊), 陳杏珍·晁繼周 點校, 中國古典文學基本從書, 中華書局, 1984年. 曾鞏著, P.284.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는 문장 중에 ‘請’, ‘又’라는 표현과 「仙都觀三門記」에서는 “동향인이라서 기문을 주는 것은 人情이다.(爲裏人而與之記, 人之情也.)” [154] 라는 문장 중에 ‘裏人’, ‘人情’이라는 표현은 曾鞏이 기문을 짓지 않으려 했지만 人情에 구애되어 기문을 지었다는 것을 충분히 표현하였다.

또한 「菜園院佛殿記」에서는 “나에게 와서 기문을 짓는 것을 구걸한다.(而來乞予文以爲記.)” [155] 라는 문장 중에 ‘乞’고 글자와, 「擬峴臺記」의 “유독 나에게만 기문을 구하다.(獨求記於予)”에서 ‘獨’은 당시 曾鞏의 亭臺樓閣記가 높이 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曾鞏의 재능에 대한 자긍심을 알 수 있다.

이로써 曾鞏의 작품은 비록 문사가 소박하고 간결하지만, 글의 취지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 그의 창작 능력이 매우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깊은 설리와 의론을 가진 亭臺樓閣記에서 그는 탁월한 문학 창조력을 보여주었다.

---

153) 宋基采 譯註, 『譯註唐宋八大家文抄 曾鞏』, 傳統文化研究會, 2011年. P.393.
154) 曾鞏 著, 『曾鞏集』(全二冊), 陳杏珍・晁繼周 點校, 中國古典文學基本從書, 中華書局, 1984年. P.274.
155) 曾鞏 著, 『曾鞏集』(全二冊), 陳杏珍・晁繼周 點校, 中國古典文學基本從書, 中華書局, 1984年. P.28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V. 결론

北宋은 亭臺樓閣記 발전의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歐陽脩・蘇軾・曾鞏・王安石・蘇轍은 北宋 亭臺樓閣記의 대표적 작가로 당나라의 亭臺樓閣記를 계승함과 동시에 北宋의 亭臺樓閣記를 새롭게 발전시켰으며, 문학창작 측면에서 작가 나름의 특색을 갖추고 있다.

당송 팔대가의 亭臺樓閣記는 蘇洵을 제외하고 모두 뛰어난 성취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 曾鞏은 비록 낮은 벼슬로 인해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亭臺樓閣記 창작에서만큼은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 그의 작품은 당송 팔대가 중에서 韓愈・柳宗元・歐陽脩・蘇軾의 것보다 우위에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唐代와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 曾鞏의 문장은 歐陽脩의 "先道而後文"와 같은 논리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歐陽脩보다 道에 더욱 치중해 "文道統一"의 추구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曾鞏은 道가 글을 창작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것도 曾鞏의 글이 대부분 이치를 따지는 원인이다. 曾鞏이 추구한 道는 유교 선현의 道였고, 이는 그의 글에서 드러나는 개인적 수양의 함양, 인생 포부, 삶의 추구, 의지 표현, 정치적 주장 등 다 유교에 대한 그의 추종과 태도를 보여준다.

宋史』에서는 曾鞏의 문장에 대해 "曾鞏의 문장은 歐陽脩・王安石 사이에 立言하여 완곡하지만 번잡하지 않고, 언어가 간결하고 뜻이 심오하며 어렵지 않다. 하지만 탁월하게 스스로 一家를 이루고 있는데 쉽지 않은 일이다."[156]고 논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曾鞏의 문장은 그의 스승 歐陽脩의 '陰柔' 풍격에 속하고, 또한 절친한 친구인 王安石의 영향도 받았지만 다른 당송 팔대가에 비해 훨씬 소박하고 꾸밈이 적다는 특징이 있다. 즉 曾鞏은 의미 전달에 치중하며 최대한 소박한 언어 사용을 즐겼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曾鞏은 자연스럽고 담백한 문장 특징으로 一家를 이루었다. 曾鞏의 문장을 살펴보면 크게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그의 亭臺樓閣記의 문풍은 모두 陰柔에 속하며 다량의 駢文, 散文, 虛詞를 사용하는

156) 宋友賢 著, 『曾鞏傳』: "曾鞏立言於歐陽脩・王安石間, 紆徐而不煩, 簡奧而不晦, 卓然自成一家, 可謂難矣." 廣東高等教育出版社, 2000年, P.4.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특징이 있다. 둘째, 그의 문장은 비록 소박하고 꾸밈이 적지만 자유분방하고 의론과 구조가 엄밀하다. 셋째, 문장 배치의 적절성을 가지고 있는데, 능숙하게 서술하는 기교를 보여준다. 넷째, 그의 문장은 조리가 분명하고 뜻 전달이 정확하다.

亭臺樓閣記는 비석, 廳壁 등에 새겨져 세인을 알리는 글이며, 원래는 亭臺樓閣의 건립 과정과 관련한 사건을 주로 기술하였다. 그러나 曾鞏은 亭臺樓閣記를 사람들에게 說理, 陳懷, 表志의 매개체로 삼았던 曾鞏은 글이 건물에 새겨지는 방식을 통해 널리 알려지기를 바랐으니, 이것은 曾鞏은 亭臺樓閣記를 창작의 초심이다.

曾鞏의 亭臺樓閣記는 曾鞏 亭臺樓閣記의 인생의 포부, 사상 주장, 정치적 추구 등을 담고 있는 내적 정신의 空間符號이다. 그의 작품 곳곳에서 풍부한 사상적 함축과 인격적 매력, 자신의 가치 실현을 위한 부단한 노력,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의 균형, 名利를 추구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으려는 각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曾鞏의 亭臺樓閣記를 연구함으로써 曾鞏이 부단히 추구했던 유교 先賢의 “도덕을 함양함으로써 문장을 이룬다(蓄道德而能文章)” 라는 文道觀, 敎化觀 및 入世하여 백성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적극적인 처세관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것은 曾鞏은 亭臺樓閣記의 문학적 의미와 가치이다.

본고의 연구를 통해 曾鞏의 창작의 특색과 역사적 가치 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 하고 曾鞏과 그의 작품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참고문헌

가. 원전류

[宋]曾鞏 著, 『曾鞏集』(全二冊), 陳杏珍・晁繼周 點校, 中國古典文學基本從書, 中華書局, 1984.

宋基采 譯註, 『譯註唐宋八大家文抄 曾鞏』, 傳統文化研究會, 2011.

吳功正 著, 『曾鞏散文精品選：原文・註釋・譯文・賞析』, 陝西人民出版社, 1995.

郭預衡 主編, 『唐宋八大家散文總集』(全十卷), 河北人民出版社, 1996.

[元]脫脫 主編, 『宋史』, 列傳第七十八, 卷三百一十九, 中華書局, 1977.

王琦珍, 『曾鞏評傳』, 江西高校出版社, 1990.

宋友賢 著, 『曾鞏傳』, 廣東高等教育出版社, 2000.

宋友賢, 『曾鞏・臨川文化系列叢書』, 百花洲文藝出版社, 2004.

康震, 『康震評說唐宋八大家：歐陽脩・曾鞏』, 中華書局, 2010.

劉淇 著, 『助字辨畧』, 世界書局出版社, 1962.

[宋]姚鉉 編, 『唐文粹』, 上海商務印書局, 1963.

[淸]劉熙載, 『藝概』, 上海古籍出版社, 1978.

王力 主編, 『古代漢語常識』, 北京聯合出版公司, 1979

[南朝] 劉勰 著, 『文心雕龍』, 周振甫 註, 人民文學出版社, 1981.

邵伯溫 著, 『邵氏聞見錄』, 中華書局, 1983.

[宋]李昉 編, 『文苑英華』, 巴蜀書社, 1988.

關永禮 編, 『唐宋八大家鑒賞辭典』, 北嶽文藝出版社, 1989.

褚斌傑 主編, 『中國古代文體概論』, 北京大學出版社, 1990.

呂晴飛, 朱寶彤 編, 『唐宋八大家散文鑑賞辭典』,中國婦女出版社, 1991.

餘英時・ 劉述先 著, 『現代儒學論』, 八方文化企業公司出版, 1996.

[淸]曾國藩, 『經史百家雜鈔』, 餘興安註譯, 崑崙出版社, 1997.

[明]吳訥, 『文章辯體序說』, 收錄於『文體序說三種』, 臺北大安出版, 1998.

王基倫 編, 『唐宋古文論集』, 臺北裏仁書局, 2001.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楊慶存, 『宋代散文研究』, 人民文學出版社, 2002.
永瑢・紀昀 著, 『文淵閣四庫全書』, 上海古籍出版社, 2003.
張少康 著, 『中國文學理論批評簡史』, 中文大學出版社, 2004.
王水照 編, 『歷代文話』 全十冊, 復旦大學出版社, 2007.
曾棗莊 編, 『宋文通論』, 上海人民出版社, 2008.
周非 著, 『諸子百家大解讀』, 吉林教育出版社, 2011.
欒貴川 編, 『孔子的脩齊治平之道』,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6.
劉鳳泉 著, 『中國古代文論旨要』, 世界華語出版社, 2017.

나. 학위논문

劉波, 「北宋亭臺樓閣散文研究」, 中南大學, 碩士論文, 2007.
喻進芳, 「曾鞏的文化品格與詩文創作」, 華中師範大學, 博士論文, 2008.
劉禕, 「北宋亭臺樓閣記研究」, 江西師範大學, 碩士論文, 2010.
王海苗, 「唐宋八大家的臺閣名勝記散文研究」, 山西師範大學, 碩士論文, 2010.
張家菱, 「曾鞏散文接受史變遷研究」, 臺灣師範大學, 碩士論文, 2011.
劉蕓, 「曾鞏記體散文研究」, 安徽大學, 碩士論文, 2012.
張超旭, 「曾鞏記體文研究」, 陝西師範大學, 碩士論文, 2013.
錢蕾, 「北宋記體文研究」, 南京大學, 碩士論文, 2014.
牛麗娟, 「宋六家記體散文比較研究」, 廣西師範大學, 碩士論文, 2016.
李佳, 「北宋建築物記研究」, 吉林大學, 博士論文, 2018.
徐靜莊, 「宋代亭記文學研究」, 彰化師範大學, 博士論文, 2019.
黃漢源, 「曾鞏史論淵源與實踐之研究」, 馬來西亞拉曼大學, 碩士論文, 2019.
楊盈姍, 「曾鞏記體散文研究」, 國立臺灣師範大學, 碩士論文, 2021.
김종섭(金鐘燮), 「曾鞏散文研究」, 서울대학, 석사논문, 1990.
홍요한(洪堯翰), 「曾鞏 연구—산문을 중심으로」, 明知大學, 碩士論文, 1993.
김용표(金容杓), 「曾鞏 산문 연구」, 國立臺灣大學, 博士論文, 1994年. 江西高校出版社出版, 2019.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김송주(金松柱), 「曾鞏記文研究」, 고려대학, 석사논문, 2010.
이여영(李汝英), 「曾鞏 서문 연구」, 전북대학, 석사논문, 2014.

다. 학술간행물

王水照, 「曾鞏及其散文的評價問題」, 復旦學報(社會科學版), 第4期. 1984.
何嬋娟, 「北宋亭臺樓閣記文化內蘊探究」, 中國文學研究, 第4期. 2007.
李國進, 「北宋亭臺樓閣散文初探」, 文藝學研究, 第35期・總第739期. 2016.
熊禮匯,「論曾鞏古文醇厚嚴密・簡淡明潔所蘊涵的文學美感」,斯文,第6輯, 2020.11.
蒲泉伶, 「試論北宋亭臺樓閣記體文的審美意義」, 大衆文藝, 文藝評論, 2022.05.
김용표(金容杓), 「曾鞏 기서문(記敍文)을 통해 본 그 실용주의 정신」, 中國學研究, 第6輯. 1991.
곽노봉(郭魯鳳), 「曾鞏 산문 이론과 특징」, 中國學研究, 第九輯. 1994.
안찬순(安贊淳), 「曾鞏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이는 朱熹의 문학관 및 그 의의」, 경북대학교, 2017.
권석환(權錫煥),「宋代亭臺樓閣記空間觀念轉型研究」, 中國散文研究集刊, 2021.12.
麓保孝, 「曾南豊の學行に就いて——宋代儒家思想史上に佔める地位」,「방위대기편」, 제7집, 1963.03.
高橋明郎, 「曾鞏の文學理論」, 明治書院・內山知也博士古稀紀念會編,「中國文人論集」, 1997.05.
東英壽, 「曾鞏の散文文體の特色———歐陽脩散文との類似點」, 日本宋代詩文研究會會刊《橄欖》第14號. 2007.03.01.
近藤一成, 「宋代神宗朝の高麗認識と小中華———曾鞏をめぐって」, 韓國「全北史學」, 第38號, 2011.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曾鞏의 ‘亭臺樓閣記’연구

鐘 小 瓊

濟州大學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摘要

北宋是亭臺樓閣記發展的鼎盛時期, 也是這類記文發展的成熟期. 北宋時期, 亭臺樓閣記已經由記敍建築主體, 演變爲文學家們藉著記敍的主體來引發議論, 抒情, 和表達文學家的獨特的個人思想. 因此, 亭臺樓閣成了寄託的媒介, 是當時文學家們表達自己的思想, 情感, 精神, 追求, 現實與理想的自我調適的空間符號. ‘唐宋散文八大家’中的歐陽脩・蘇軾・曾鞏・王安石・蘇轍是北宋的亭臺樓閣記的最傑出代表.

曾鞏的亭臺樓閣記在北宋・明淸時代以及後代有很高的評價, 他的這類文章相對於上述4人的文章, 更具普遍性和易於學習模仿性的特點. 曾鞏的這類文章在北宋的傳誦範圍廣, 學習模仿者衆多, 影響也大. 可是, 現代曾鞏的研究沒有得到重視, 曾鞏的亭臺樓閣記也沒有得到應有的重視. 這是曾鞏的研究領域中的不足和遺憾.

本論文以曾鞏的24篇亭臺樓閣記爲主要研究對象, 探究曾鞏的亭臺樓閣記的主要內容・寫作特點・創作目的・歷史地位和文學價值. 通過詳細研讀曾鞏的亭臺樓閣記, 探討這類文章的特色, 來研究曾鞏寄託在這些建築物上的具有個人特性的意義. 以此來了解曾鞏和他的文學創作, 乃至北宋亭臺樓閣記文的普遍性的文學特點.

全文分爲4章, 將詳細論述之.

第一章, 綜述曾鞏的亭臺樓閣記的研究現狀, 意義和目的.

第二章, 釐淸曾鞏的亭臺樓閣記的分類界線, 確定研究範圍, 將其亭臺樓閣記再分類.

第三章, 根據曾鞏的亭臺樓閣記的分類, 對每類別的文章內容進行詳細分析, 探討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其中呈現的曾鞏的宗教態度・人生抱負・趣向追求・政治主張等.

第四章，通過考察曾鞏亭臺樓閣記的文章風格，駢文與散文的應用，虛詞的應用，文章的行文佈局，語言的表達等方面，來了解曾鞏的亭臺樓閣記的敍述戰略， 以此來把握曾鞏的文學創作的特點和他的作品的文學價值.

關鍵詞: 曾鞏，亭臺樓閣，記文，內容分析，文章特徵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 Study Of Zeng Gong's Pavilions Narrative Prose

ZHONG XIAOQIONG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Northern Song Dynasty was the heyday of the development of Pavilions Narrative Prose, and it was also the mature period for the development of this type of records. During the Northern Song Dynasty, the writings on Pavilions Narrative Prose have evolved from describing the main body of buildings to the writers using the main body of descriptions to arouse discussions, express emotions, and express the unique personal thoughts of writers. Therefore, the records of Pavilions Narrative Prose became the medium of sustenance, and it was the spatial symbol for the writers at that time to express their thoughts, emotions, spirits, pursuits, and self-adjustment between reality and ideals. Ouyang Xiu, Su Shi, Zeng Gong, Wang Anshi, and Su Zhe among the "Eight Masters of Prose in the Tang and Song Dynasties" are the most outstanding representatives of the Pavilions Narrative Prose in the Northern Song Dynasty.

Zeng Gong's essays on Pavilions Narrative Prose were highly praised in the Northern Song Dynasty, Ming and Qing Dynasties and later generations. Compared with the above four articles, his articles are more universal and easy to learn and imitate. Zeng Gong's articles of this kind had a wide range of recitations in the Northern Song Dynasty, and there were many people who studied and imitated them, and their influence was also great. However, The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research Zeng Gong's has not received much attention in modern times, and Zeng Gong's Pavilions Narrative Prose have not received due attention. This is the deficiency and regret in the research field.

This paper takes Zeng Gong's 24 Pavilions Narrative Prose as the main research object, and explores the main content, writing characteristics, creation purpose, historical status and literary value of Zeng Gong's Pavilions Narrative Prose. Through a detailed study of Zeng Gong's Pavilions Narrative Prose, and discussing the characteristics of such articles, we will study the personal significance that Zeng Gong placed on these buildings. In this way, we can understand Zeng Gong and his literary creation, and even the universal literary characteristics of the Pavilions Narrative Prose in the Northern Song Dynasty.

This article is divided into 4 chapters, which will be discussed in detail.

The first chapter, summarizes the research status, significance and purpose of Zeng Gong's writings on Pavilions Narrative Prose.

The second chapter, clarifies the classification boundaries of Zeng Gong's inscriptions on Pavilions Narrative Prose, determines the scope of research, and reclassifies his inscriptions on Pavilions Narrative Prose.

The third chapter,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Zeng Gong's Pavilions Narrative Prose, analyzes the content of each category of articles in detail, and discusses Zeng Gong's religious attitude, life ambition, pursuit of interest, and political views, etc.

The fourth chapter, by examining Zeng Gong's style of writing, the application of parallel prose and prose, the use of function words, the layout of the article, and the expression of language, we aim to understand Zeng Gong's narrative strategy in his notes on pavilions and pavilions, in order to grasp the unique features of Zeng Gong's literary creation and the literary value of his works.

Key words: Zeng Gong, Pavilions Narrative Prose, Narrative Prose, Content Analysis, Narrative Strategy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